

**메인 기획 Main Proposal**

2019년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주요 성과  
Great accomplishment of Korea NU10 in 2019

대한민국 거점 국립대학교 소식지

**Vol.8 (Eighth Issue)**

**December 2019**

# Korea NU10 MAGAZINE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215-000019-08

ISSN 2635-411X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 인사말 Greetings

- 04 한층 높아진 거점 국립대의 위상과 경쟁력  
Enhanced Position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NU10

## 메인 기획 Main Proposal

- 2019년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주요 성과  
Great accomplishment of Korea NU10 in 2019
- 06 개방형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으로 국립대학의 역할  
Roles of a national university as a foundation of an open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 09 세계로 진출하는 거점 국립대  
Korea NU10 toward the world
- 12 거점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첨단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자  
Let's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Advancing the Experiment Practice of K-NU10

##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15 메기 효과와 도넛 경제학의 패러독스,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  
Catfish Effect, Doughnut Economics, and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 거점 국립대 소식 Korea NU10 News

- 18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회의 개최  
The Fourth Meeting of the 2019 CP K-NU10
- 20 거점 국립대 9곳, 2020년 3월부터 '원격수업' 통합 시범 운영  
K-NU9 Members to Kick Off Pilot Remote Class from March 2020
- 22 QS-APPLE 2019 콘퍼런스 & 전시회 참가  
QS-APPLE 2019 Conference and Exhibition

##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 26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28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30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32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34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 36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38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40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42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44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 46 Introduction to Korea NU10

#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발행일 2019년 12월 25일(통권 제8호)  
발행인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작 굿디자인연구소 (Tel. 051-796-6600)

The date of issue 25/12/2019 (Vol.8)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el. 051-796-6600)



# 한층 높아진 거점 국립대의 위상과 경쟁력

## Enhanced Position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NU10

2019년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경상대학교 총장

### 이상경

Presid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Chairman 2019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ang-Gyeong Lee Ph.D.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고등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합니다.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의 분야에서 국립·공립·사립 대학들의 모범이 되고 지역의 산업·문화·교육 발전에서 중심점(플랫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거점 국립대들은 국경을 넘어 해외의 우수한 대학과 손을 맞잡음으로써 선진 교육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고 아울러 국내 우수한 인재를 해외로 파견합니다.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구 기자재의 도입과 교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대학박람회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거점 국립대학교의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평가기관의 대학평가에서 거점 국립대가 가진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독일의 9개 우수대학(TU9)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와의 공동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K-NU9 세계대학평가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세계대학평가 지표를 확인하고 이를 높이고자 거점 국립대들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세계적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THE의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초빙해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등 모든 분야의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QS-APPLE 2019 콘퍼런스'에도 공동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되돌아보면 2019년은 거점 국립대들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해이며 또한 거점 국립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각 대학의 총장님을 비롯 해 실무 담당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 해에 한 번 개최하는 거점 국립대 제전으로 여러분의 노고를 보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한층 높아진 거점 국립대의 위상과 경쟁력으로 다소나마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NU10) improves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o provide equal and excellent educational services to the public. It serves as a model for other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the education, research, volunteer, and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sectors. Moreover, it plays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industry, culture, and education.

The K-NU10 collaborates with prominent universities overseas to introduce advanced education systems and dispatch domestic talents abroad. Moreover, it has introduced and replaced equipment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needed to become research-oriented schools. All members of K-NU10 attended the overseas university exhibition to flaunt K-NU10's reputation to the world. Furthermore, the K-NU10 strived for a fair evaluation in terms of its competitiveness in university ranking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The K-NU10 signed an MoU on exchanges and collaboration with TU9 German Universities of Technology e.V and another MoU on a joint collaboration with Times Higher Education (THE). In line with this, the council held the "K-NU9 Joint Symposium on World University Rankings." Thinking that K-NU10 would align with world-class universities by improving its ranking, the council invited the data analysis expert from THE in attempts of enhancing the education and research of K-NU10 and discussing ways to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Moreover, K-NU10 attended the QS-APPLE 2019 held in Fukuoka, Japan, and did promotional activities through the joint booth.

Looking back at 2019, K-NU10 exerted efforts in achieving its goals and proved the council's true purpose. The efforts of each president and working-level staff from each university during the journey were duly acknowledged and appreciated. I know the annual K-NU10 festival could not suffice for your hard work, but I hope that K-NU10's improved status and competitive edge would give you relief and satisfaction. Thank you.

# 2019년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주요 성과

## Great accomplishment of Korea NU10 in 2019

2019년은 거점 국립대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규모 확대로 거점 국립대가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실험·실습 기자재의 첨단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예산을 대폭 확충한 덕분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대학평가기관과 손을 잡음으로써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거점 국립대의 1년간의 활동을 점검해 본다.

To the K-NU10, 2019 will be recorded as a year of changes and progress. With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the K-NU10 is becoming a regional growth engine as a community-based platform. With the modernized practice experiment equipment, thanks to the increased budget, we are one step closer to cultivating promising students to be leader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collaborating with the world-renowned university ranking institute, we can walk side by side with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We will look back on the past year's activities of the K-NU10.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성장 경제기조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감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장기적 경기침체요인의 강세 등 매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으로서 지속가능한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산업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의 미래인재육성과 지역산업의 혁신 및 활성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방적 지역혁신의 생태계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요소인 국립대학의 역할로 귀결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고유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에 국립대학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과 현황**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대, 교원양성대 등 권역별, 유형별로 총 39개 대학(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인천대 제외)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각 권역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국립대학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도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적인 운영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각 지역의 국립대학, 특히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이 지속적인 혁신과 진화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국가공공 분야의 초석을 닦는다. 아울러 교육 평등 시대에 걸맞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캠퍼스 시설의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여의 책무성이 엄중히 부여되어 있다.

# 개방형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으로 국립대학의 역할

## Roles of a national university as a foundation of an open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Although Korea's per capita income surpassed USD 30,000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the country is facing challenges such as a demographic cliff,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rapidly changing domestic/global trends, and factors of stagnation. To solve these issues, a new paradigm for a nation's sustainable growth engine is necessary. In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we should develop local talents, and innovate and activate local industr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which consequently connects to the role of a national university as an open regional ecosystem, which is a core element i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t requires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center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based on each region's innovation capabilit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urpose of establishing a national university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its current status**

Based on characteristics and categories, 39 national universities are located by region such as Korea NU10 (K-NU10),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and other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exc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which is the basic management philosophy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김규용**  
충남대학교 기획처장(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회장)  
**Kim Gyu Yong**  
Planning Direct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of Council of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그러나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국립대학 정책은 운영체제 개선 및 통폐합 등 구조개혁 위주로 추진되어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 투자는 미흡했다. 최근까지의 목적성 재정지원 사업은 국사립 구분 없이 획일적 평가 기준의 결과에 의한 차등 지원으로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의 책무성이 상실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대두되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고등교육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립대학 정책지원**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학이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대학을 지역 고등교육 발전의 생태계 조성 및 국가 균형발전에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취지에서 추진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 그 뿌리이며, 국립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열악했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큰 틀이 되었다.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5대 중점추진 단위과제로서, [지역사회 기여] 국립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의 목표·방향·전략을 설정하고,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연계·협력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 고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한다.

[기초·보호학문 강화]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네트워크 활성화] 대학 간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및 지역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국립대학 스스로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추진한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와 협업의 범위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협업할 수 있도록 광역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원과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연구실, 문화 공간 등으로 공유하는 개방적 지역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국립대학 간 상생협력 위한 협업체계 구축**

2018년 9월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획처장 협의회'가 발족하면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유형별 회장과(거점 국립대, 지역중심대, 교원양성대)와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실무협의체를 조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국립대학 간 과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선정 경쟁관계로부터 공적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사업간 중복성 방지와 자원의 공동활용에 의한 효율성 제

Through this process,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region, especially the K-NU10, establish cooperative systems and strengthens the basis in national and public sectors to keep innovating and evolving education for local talents and industries. It takes social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by developing and running an education program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for their rights to education, and communications with residents by opening school facilities.

Policies on national universities, however, have been focusing on structural reforms such as developing the operating system and merger, witho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ational university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which results in poor financial investment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and research environment. One of the issues raised regarding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is how the support is provided by rankings according to the uniform evaluation criteria regardless of national/private universities, which has consequently weakened the role and func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has lost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education and co-development with a local community.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Policy support for developing regional higher educ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recently provided policy support to strengthen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empower them to become leaders in creating an ecosystem for the growth of regional higher educ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the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PoINT) is the pilot project that started in 2014, which has dramatically raised efficiency in university operations, such as restoring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strengthen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universities.

Five core unit assignments for the 2019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Contribute to local communities] National Universities with the local government set a goal, direction, and strategy for local development and collaborate with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Guarantee education equality] National Universities 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xpand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for regional talents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Support fundamental studies and study fields to be protected] National Universities develop primary studies and study fields to be preserv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provide research support for areas that need development by national policy. [Promote networking] National Universities promote an ecosystem of higher education by building networks for functions and fields among schools and cooperative systems between relevant local agencies. [Build a specialization plan and a development model] National Universities analyze their attributes and situations to develop a model that can sharpen competitiveness. It is crucial to build a broad foundation wher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even private universities can collaborate in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고, 자발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협업의 시너지가 도출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사업 규모 확장에 맞춰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 회에서는 올 8월 사무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시동을 걸었다. 아카이브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전국 39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하는 등 사업 홍보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기반한 필수 수행사항으로 대학별 사업계획 및 운영성과 점검 결과, 예산집행 결과, 우수사례 등을 워크숍,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자율적인 협의체를 통하여 각 대학 간 강점 분야를 강화하고, 협력방안 및 성과공유 등을 위해 지역·유형·네트워크별 대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우수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대학별 우수성과 발표·공유를 위한 성과포럼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상호 발전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업 강화로 상생발전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개방형 지역혁신 생태계의 원동력으로서의 국립대학

국립대학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들의 눈빛이 밝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대에 찬 눈빛이다. 지난해 사업예산 800억 원에서 2019년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1,50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재정규모의 증대와 단일성과 중심이 아닌 역량 강화 지원 방식으로의 개편 방향은 고무적이라 평할 만하다. 아울러 국가와 지역사회가 국립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이 매우 큰 동시에 국립대학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

국립대학이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권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대학은 더 이상 교육과 연구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규모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변화를 일으킬 시점이다.



#### [Council of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Building a cooperative system for win-win partnerships among national universities

With the launch of the "Council of Planning Director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September 2018, the "Council of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CNUDP)" was organized with chair schools by category (K-NU10,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and other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and working groups by region (metropolitan area, Gangwon area, Yeongnam area, Honam/Jeju area, and Chungcheong area).

Although national schools used to compete with each other under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gram, they have started building a collaborative system to strengthen official roles and functions, which, as a result, avoids project overlapping, utilizes resources together for more efficiency, and creates cooperative synergies via networking.

In August 2019, the CNUDP opened a head office, which is in full swing now to keep up with the project expansion of the year. It created a website that will serve as an archive and online networking, and performed promotional activities, including an awareness survey targeting students from 39 universities.

The council shares project plans by the university, results of examining operation performance and budget execution, and best practices via workshops or the website. Moreover, a self-regulating consultative group improves areas of strength among schools, while a university consultative group by region, category, and network will be organized to share collaboration plans and achievements.

We will share the best practices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through a performance forum, which will be an opportunity for mutual development. It will also be a great chanc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and collaboration.

#### Expectation toward national universities as a driving force of the open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re looking at national universities in great anticipation. In 2019, the project budget for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 is KRW 150.4 billion (USD 126 million) from KRW 80 billion (USD 67 million) last year. Hence, financial support has focused more on capacity building instead of single outcomes and budget expansion. At the same time, we face a huge responsibility, given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look forward to our roles.

For national universities to perform a role as a community-based platform, it requires innovation that can increase their capacity dramatically, and the K-NU10 should take a leading role.

A university is not an organization only for education and research. As a community-based platform, it should be a growth engine in a region. It is time to ponder upon ways to realize this goal, expand the program, and make a change.

# 세계로 진출하는 거점 국립대

## Korea NU10 toward the world



거점 국립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 기둥 같은 존재다.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거점 국립대는 그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거점 국립대에게 주어진 역할은 막중하다. 그중 하나가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이다.

국내 몇몇 사립대와 달리 거점 국립대는 그동안 세계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2020년 세계대학랭킹'을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거점 국립대는 세계랭킹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물론 랭킹 하나만으로 대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국경이 없는 지금, 세계 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내 많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개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거점 국립대 역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국제 교육기관 혹은 협의체와의 교류를 넓혀 왔지만 사실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The K-NU10 is like a pillar in Korea's higher education, representing both the region and the country.

The K-NU10 has grown in quality and quantity. Amid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facing those institutions, the K-NU10 bears a heavy responsibility. One of them is "To develop into a global university."

Unlike a few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the K-NU10 has not fully exerted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According to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0 by Times Higher Education (THE), the UK's university ranking publisher, among the K-NU10, only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t the top of the rank. A ranking, of course, cannot be the yardstick for evaluating the value of schools. With borderless education of today,



최창식  
대학저널 편집국장  
Choi Changsik  
Managing Editor of DeaHak Journal



이러한 가운데 올해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K-NU10)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외교류 활성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제사회에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알릴 수 있음은 물론, 대학 간 장점은 높이고, 단점은 보완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세계무대에서 집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8년부터 공동전선을 펼쳐 국제사회로 점차 뻗어나가고 있다. 대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해외자원을 유치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적인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첫 시작은 독일의 9개 우수대학 협의체인 'TU9(Technische Universität 9)'과 MOU를 맺고 교류 물꼬를 튼 것이다. TU9은 독일 엔지니어 우수인재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독일 9개 주요 공과대학 협의체다. 아헨공과대(RWTH Aachen), 베를린공과대(TU Berlin), 브라운슈바이크공과대(TU Braunschweig), 다름슈타트공과대(TU Darmstadt), 드레스덴공과대(TU Dresden), 라이프니츠 하노버대(Leibniz University of Hanover), 카를스루에공과대(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뮌헨공과대(TU München), 슈투트가르트대(University of Stuttgart) 등 9개 대학이 회원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대학 전체 지원금의 4분의 1 가량을 지원받는 연구거점일 뿐만 아니라, 독일과 유럽 지역의 과학·공학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학생·연구자 교환과 이중 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교과과정 개발, 연구 협력 등 양국의 대학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양국을 대표하는 대학 협의체가 상호 협력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however, we must be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ny domestic universities turn away their attention overseas as a solution to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K-NU10 has also expand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educational organizations or councils, which has not achieved the desired outcome.

The good news is that the CP K-NU10 exerts a joint effort this year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s. It will introduce Korea's competitive higher education more effectively and diversely, and help each university develop its strengths and work on the weakness.

The CP K-NU10 has realized the importance of collective power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has made its presence know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2018. With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attracts excellent overseas talents and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creative talents who will lead the 4IR.

It paved the way for exchanges as the first step by signing an MoU with TU9 (Technischen Universität Berlin), an alliance of nine leading universities in Germany, which produces more than half of outstanding engineers in the country. Members include RWTH Aachen, TU Berlin, TU Braunschweig, TU Darmstadt, TU Dresden, Leibniz University of Hanover,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TU München, and the University of Stuttgart. TU9 serves as a research hub that receives about one-fourth of all grants from the government and plays a pivotal role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 Germany and other parts of Europe. The two organizations have agreed to develop a joint curriculum including student/researcher exchange and dual degree programs, and collaborate in research to establish a new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the two countries. It is meaningful that the two representatives of the university of both countries have started a partnership.



이어 올 7월에는 THE와 공동 협력 MOU를 체결했다. 거점 국립대가 세계대학평가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HE는 QS(Quacquarelli Symonds),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와 더불어 세계 3대 대학평가로 꼽힌다. THE는 2004년부터 전 세계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한 '세계대학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대학의 교육·학습 여건, 연구 생산성, 연구 영향력, 국제화 수준, 기술이전 수입 등의 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K-NU 심포지엄 등 각종 회담을 통한 소통 증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광고·홍보 방안 수립 ▲세계 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에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점 국립대의 대외 인지도와 대학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내외 우수 신입생 유치 확대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8월 전북 무주에서 THE의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초빙한 '세계대학평가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랭킹, WUR(World University Rankings) 방법론, 아시아 방법론 ▲K-NU의 경쟁력 제고 방안 ▲아시아, 아세안, APAC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 방안 ▲평판: 설문 조사, 조사 응답자, K-NU9의 역량 및 팁 ▲브랜딩: 사례 연구, 모범 사례, 해결책 ▲혁신 및 영향력 순위-리뷰, 향후 제출 방법 및 지침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K-NU10 회원교 총장, 대학평가 관련 관계자들은 교육·연구 등 전 분야에서 거점 국립대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세계대학평가 순위 향상은 물론 거점 국립대 전체의 대외 경쟁력을 드높이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K-NU9은 11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QS-APPLE 2019 콘퍼런스 & 전시회(QS-APPLE 2019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QS-APPLE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회의와 전시를 통해 국제 교육자 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산업혁명 4.0과 고령화사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의 역할 변화'였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거점 국립대 총장, 국제교류 담당 보직교수, 교직원들은 전문가 초청 특강과 주제별 5개 트랙 세미나를 거치며, 세계무대에서 대학 경쟁력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아울러 공동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기관·교육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학생 교환·파견 프로그램 등 국내외 대학과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했다.

일련의 행보로 K-NU10은 국제사회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향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 고등교육의 초점이 세계로 맞춰진 지금, 거점 국립대의 방향은 명확하다. 2020년, K-NU10을 주축으로 한 거점 국립대의 발전이 기대된다.



In July, the CP K-NU10 signed another MoU with THE.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K-NU10 concluded an MoU with the world university ranking institute. THE is one of the top three world university rankings, along with QS (Quacquarelli Symonds) and ARWU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Since 2014, THE has announced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through which a specific school's teaching/learning conditions, research productivity, research influence, internationalization level, technology transfer, and other elements can be estimated.

Through the MoU, the two organizations will 1) promote communications through various meetings such as K-NU Symposium, 2) establish a measure on joint promotion and advertising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3) analyze data to improve rankings. We expect that these will raise awareness of the K-NU10 overseas,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and attract superb students at home and abroad.

In August,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Joint Symposium was held in Muju, Jeonbuk, participated by data analysis experts from THE. Topics of the presentation include: 1) Ranking, World University Rankings (WUR) Methodology, Asian Methodology; 2) Measures to improve K-NU10's competitiveness; 3) Benchmarking from Asia, ASEAN, APAC, and the world; 4) Reputation: Survey, Respondents, Capabilities, and tips of the K-NU10; 5) Branding: Case Study, Best Case, Solution; 6) Innovation and Influence Ranking - Review, and instructions on the submission of presentation topics and others. The presidents of the K-NU10 member schools and university ranking professions who attended the event said that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 K-NU10 to improve ranking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reviewing current issues and discussing ways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In November, the K-NU9 attended the QS APPLE 2019 Conference and Exhibition held in Fukuoka, Japan. With this year's theme, "Industrial Revolution 4.0 and Ageing Societies: The Changing Roles of Universities in the Asia-Pacific," the event aimed to build secure networks and share information among international educators through conferences and exhibitions on higher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presidents, appointed professor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faculty and staff of the K-NU10 attended the conferences with five tracks and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K-NU10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y opened a joint booth for promotional activities and had opportunities to expand collaboration with universities locally and abroad through networking amo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ors and student exchange and dispatch programs.

With its meaningful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NU10 has established a solid foothold for stronger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Today, when higher education maintains its focu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direction of the K-NU10 is clear.



# 거점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첨단화로

##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자

Let's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Advancing the  
Experiment Practice of K-NU10



이상경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Sang-gyeong Lee, Ph.D.,  
President of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2019-2020년은 거점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의 현대화를 이뤄낸 해로 기록될 것이다. 거점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관련 예산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상당액 증액됐고 2020년 본예산에서는 대폭 증액됐다. 이로써 ‘20세기 실험실습 장비로 21세기 교수가 22세기 대학생을 가르친다’는 비판을 상당 부분 극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당초 예산에서 39개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은 535억 원이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의 70% 정도는 10개 거점 국립대에 배정된다. 이 같은 예산으로는 1990년 중·하반기부터 심화해 온 각 대학의 고가 기자재 노후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 교육기자재와 연구기자재의 현대화 필요성은 날로 증대돼 갔으나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이 직접투자로 노후 기자재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므로 기자재의 현대화 사업은 요원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2017년 11월 공동실험실습관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 1차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1990년대부터 각 지역별 국립대에 설치한 공동실험실습관은 고가의 전문적인 실험기자재를 지원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적 분석업무로 기여해 오고 있다. 2017년 당시 24개 국립대학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노후도를 조사했더니 금액 기준으로는 32%, 기자재 수량 기준으로는 36%가 노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2019년 1차 협의회가 열린 3월 또 다시 이 문제를 환기시켰다. 기자재 비용은 오르는 데 반해 교육실습기자재비는 줄어들고 있어서 최신 교육실습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최근 첨단 기자재 가격이 매우 높아져 배분되고 있는 신규 확충 사업비로는 노후 기자재의 교체와 신규 기자재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한 대체 실험실습기자재의 가격은 이전 기자재에 비해 고가여서 예산 증가 없이는 기자재 노후화도는 더욱 급속히 상승할 것이 뻔했다. 총장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언론 기고문을 통해 “20세기 실험실습 장비로 21세기 교수가 22세기 대학생을 가르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우수 인력을 교육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각 대학들의 공동실험실습관이 보유한 10년 이상 된 기자재를 첨단연구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고, 기초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실험실습실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시적 방안을 마련해야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다. 또한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 인하로 인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전혀 없다고 고백했다. ‘과학의 발전이 국가의 미래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We will remember 2019 to 2020 as the years of modernizing the lab equipment of K-NU10. The relevant budget fairly increased in the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for 2019 and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main budget for 2020.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we can now respond to the criticism of “teaching the 21st century’s students using the 20th century’s equi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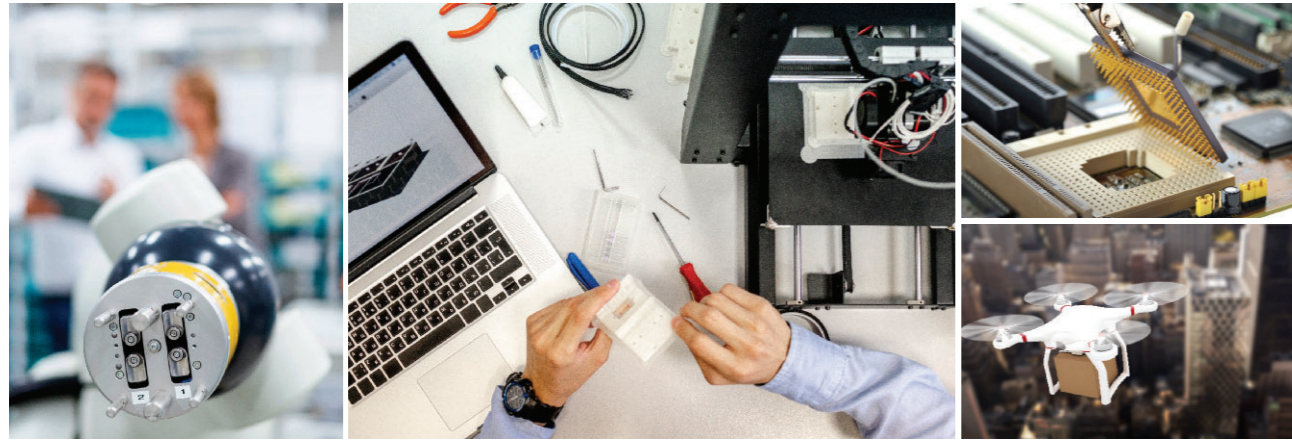
The original budget set in early 2019 for 39 national universities’ practice experiment equipment was KRW 53.5 billion (USD 45 million). Approximately 70% of this budget is assigned to 10 K-NU10, which is still insufficient to solve the ever-worsening problem of the expensive old equipment at each school since the mid/late 1990s. However, despite the necessity to improve education and research equipment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the modernization project seemed distant as schools did not have enough budget for replacing the old equipment through direct investment because of the tuition freeze.

In November 2019,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orea NU10) submitted a proposal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to replace the old facilities at the Joint Experiment & Practice Hall (JEPH). The JEPH established at national universities in provinces received high-end professional experiment equipment support, which has helped in the research and experiment activities of professors and students as well as for analytic works needed for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survey in 2017 on the level of deterioration of the equipment at the JEPH of 24 national universities,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level was 32% in terms of the equipment price and 36% in terms of the quantity. As such, we requested the budget in the same year, but it ended up not reflected in the plan.

The CP Korea NU10 raised this matter again at the first conference held in March 2019. We had difficulty in purchasing the latest educational equipment with a reduced budget amid increasing equipment prices. Moreover, the project budget assigned for equipment expansion was insufficient in meeting the demand for the old equipment replacement because of the increase in equipment prices. Meanwhile, the prices of alternative equipment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ld one, so we thought the equipment deterioration would occur faster than ever. Therefore, the CP Korea NU10 decided that there should be policy reforms to address these issues.

As the President of the CP Korea NU10, I wrote a press contribution about the concern that schools cannot cultivate talents in the era of the 4IR amid the criticism of “professors of the 21st century teaching the 22nd century’s students using the 20th century’s equipment.” Presidents of K-NU10 collectively argued that we could open the new future of Korea only if we have microscopic methods by replacing the 10-year-old equipment at the JEPH with the innovative ones and modernizing research labs for basic science subjects (e.g.,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earth science). They added that schools themselves could not resolve the problem because of the tuition freeze and reduction for over 10 years. As such, they strongly requ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pecial measures if it agrees that the future of the country depends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러한 외침에 정부가 화답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가 314억 원 증액됐다. 당초 535억 원에서 849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예산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 전국 39개 국립대에 고르게 배분됐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8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24개 국립대 총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문제인 대통령께 "실험실습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실험실의 노후화된 기자재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다. 대학으로서는 그만큼 절박했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교육부는 2020년도 예산에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안전 환경 조성 예산으로 682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당초 예산이 535억 원이었으므로 2020년 예산은 1,200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예산 가운데 70% 이상은 거점 국립대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0년도 국립대학 기자재 시설 개선 사업비로 1,200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고 정확히 보고했다. 그 자리에 나를 포함하여 많은 국립대 총장이 배석했다. 이제 거점 국립대는 점차 첨단화해 가는 분석기술과 과학의 진보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고가 기자재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실습기자재 구입비와 공동실험실습관의 노후화한 기기의 교체 및 확충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21세기 강의실에서 22세기 실험실습기자재로 교육·연구하고 실험실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과정에 힘을 모아준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request by increasing the project budget by KRW 31.4 billion (USD 26 million) to expand the practice experiment equi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for 2019, which increased from KRW 53.5 billion (USD 45 million) to KRW 84.9 billion (USD 72 million). Then, the budget was evenly distributed to 39 national universities, including the K-NU10. We kept on working for it. We brought the matter in the luncheon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presidents of 24 national universities. I pointed out the necessity for financial investment to President Moon Jae-in, asking for the replacement of the old equipment to respond to the government's demand for safety in laboratories and, at least, secure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ies. I kept raising this issue when opportunities arose because it was an urgent matter for schools, and the government was aware of how serious the situation was. At last, the MOE announced that it increased the budget for 2020 by KRW 68.2 billion (USD 58 million) to expand practice experiment equipment and create a safe laboratory environment at national universities. The previously assigned budget in 2019 was KRW 53.5 billion; therefore, the budget for 2020 will exceed KRW 120 billion (USD 1 billion). As mentioned earlier, about 70% of this budget will be distributed to K-NU10. Yoo Eun-hye, the Minister of Education, reported through the Presidential Report that the MOE assigned the budget for 2020 to improve equipment for national universities. I was present at the meeting with other presidents from national universities. The K-NU10 will improve the advancing analytic technology and science by purchasing high-end equipment worth over KRW 1 billion (USD 854,405). Therefore, we will achieve the replacement/expansion of the old facilities at the JEPH and remain competitive in the era of the 4IR. It is now possible for us to study and experiment in the 21st century's lecture halls with the 22nd century's facilities. Thus,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presidents of the K-NU10, the MOE,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or the support in making this possible.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메기 효과와 도넛 경제학의 패러독스,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

Catfish Effect, Doughnut Economics, and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송석연  
제주대학교 총장  
Seok-Eon Song  
President,  
Jeju National University

냉전시대 서유럽을 빗댄 청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미꾸라지로, 중화권에서는 다시 노르웨이 정어리로 바뀌었지만, 천적인 메기가 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패러독스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용된다. 경쟁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주장은 확실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 중심이었던 우리 교육계에 현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비롯한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절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 거점 국립대학은 생존을 걱정하는 청어 때가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메기가 되어야 한다.

The Cold War Era Western Europe is alluded to a school of herring, to a shoal of mudfish in Korea and then a school of Norwegian sardine in China. The fact that the natural enemy, catfish, plays a role of strengthening vitality is a widely quoted paradox even today.

메기 효과(Catfish Effect)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꽤나 익숙한 말이다. 그런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토인비는 시사잡지 『The Rotarian』(Vol.76, No.4, pp.64, April, 1950)에 기고한 『Catfish Philosophy』(메기 철학)에서 냉전시대 유럽이 발전하는 데 러시아가 끼친 영향력을 영국 어부의 청어잡이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그보다 1년 앞선 1949년에는 『Russian Catfish Western Herring』(러시아산 메기 유럽산 청어)라는 제목을 단 8쪽짜리 단행본을 내기도 했다. 평소 역사 발전이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역설했던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이기도 하다.



냉장운송시설이 부족하던 시절, 노르웨이 또는 영국 어부가 청어(Herring)를 싱싱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수조에 메기를 넣었다는 '사실'을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볼 길이 없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정작 유럽보다 동아시아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선대인 이병철 회장의 '메기론'을 소개하면서 유명해졌다. 1993년 신경영을 시작한 이견희 회장은 '삼성에 필요한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꾸라지만 뇌든 눈보다 메기를 풀어 놓은 눈의 미꾸라지가 더 통통하게 살찐다. 이들은 메기에 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운동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서유럽을 빗댄 청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미꾸라지로, 중화권에서는 다시 노르웨이 정어리로 바뀌었지만, 천적인 메기가 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패러독스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용된다. 경쟁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주장은 확실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2012년 국내 언론에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연구결과가 소개되었는데, 제한된 공간에 포식자를 넣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약화로 사망률이 4배 이상 증가할 뿐 아니라, 추후 환경생태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메기 효과와 배치된다.

미세 분자 형태인 DNA가 세포 군집, 더 나아가 한 개체와 종, 더 나아가 생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역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역설, 곧 패러독스는 세계의 근본에 내재되어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메기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60%로 하락된 취업률, 학령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70% 수준의 높은 대학진학률, 직장 업무와 전공의 mismatch로 인한 전공일치 취업률 저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증가 등은 대학이 스스로를 청어로 만들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청어가 된 대학은 학문 중심의 고등교육 대신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에 몰두하게 되었다. 앞으로 20년 내에 전 세계 대학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것이라거나, 현재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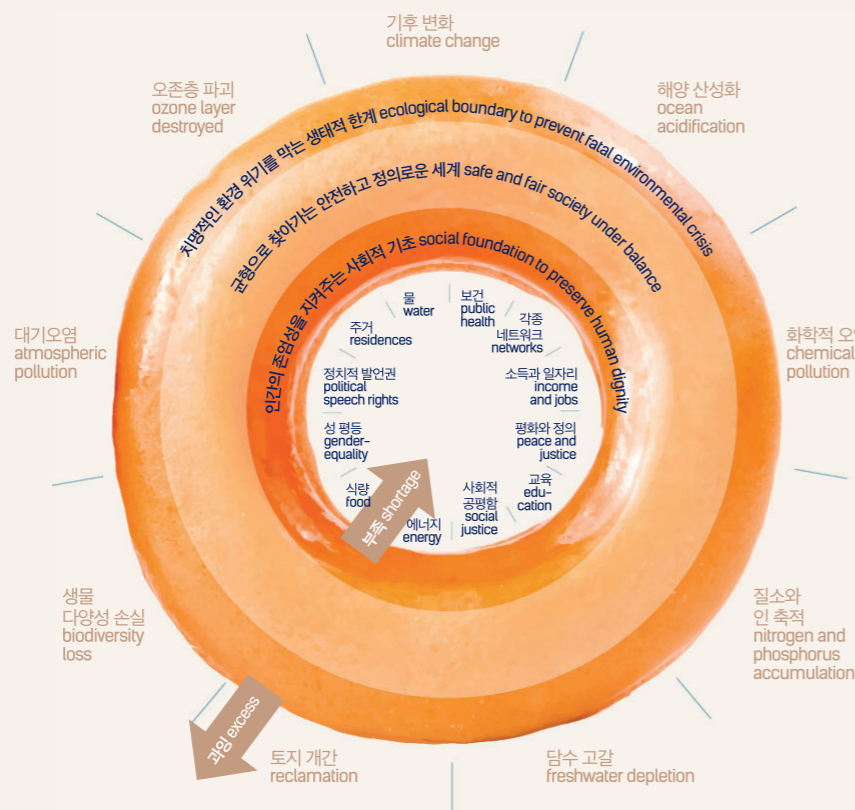
배우는 내용의 80~90%가 그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은 대학의 위기감을 지금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패러독스는 바로 '지금, 여기'가 지역의 공교육과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거점 국립대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지점이라는 데 있다. 거점 국립대학은 생존을 걱정하는 청어 때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메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도넛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성장 중독에 빠진 주류 경제학에서 벗어나 지구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학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제시한 대안 모델이다. 레이워스는 모든 이가 누려야 할 최소 수준의 안녕(wellbeing)을 가리키는 사회적 기초를 원으로 표시했다. 경제활동이 이 원 안쪽으로 오고 라드는 것은 경제적 결핍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는 것을 뜻한다. 이 첫째 원을 감싸는 더 큰 원, 곧 도넛의 바깥쪽 원은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류가 생존하려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다.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에서 바람직한 경제는 첫째 원과 둘째 원 사이를 채우는 도넛형 공간으로 표시된다. 작은 원 안쪽으로 위축되지 않으려고 경제 활동 규모를 키우다가는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서 공멸하게 된다. 반대로 바깥쪽 원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면 안쪽 원이 오그라들어 경제적 결핍이 초래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절묘한 균형이다. 성장 중심이었던 우리 교육계에서 현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비롯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이 절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러한 때에 '기초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서 '도넛'의 영역을 선도적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Korea NU10의 책무라고 믿는다.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 모델  
Doughnut economics model after Kate Raworth



However, today our growth driven educational circles are maintained, as they say in the "doughnut economics," at an exquisite equilibrium, thanks to the present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and other funding program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t such a moment, I would propose w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come schools of catfish leading us to the changes and advancements, rather than a shoal of herring begging for survival.

The term Catfish Effect is rather familiar expression to the Korean people. However, not many are aware that the term is attributed to Historian Arnold J. Toynee. In his contributing article "Catfish Philosophy" to "The Rotarian" (Vol. 76, No. 4, pp.64, April 1950), he explained the effects of Russia on the development of Europe during the Cold War era by alluding them to the English fishermen catching herring. A year before that in 1949, he even published a monograph of just 8 pages

entitled "Russian Catfish Western Herring." Considering his emphatic view that history is always made by challenges and reactions to the wars, his analogy falls into place perfectly.

Realizing that refrigerated transport and distribution facilities were not in place in those days, it's not easy to establish the fact that Norwegian or English fishermen transported their fresh herring catches in fish tanks to which a few catfish were added. Perhaps that's why the catfish trick is widely used in the East Asia today, but not in Europe. In Korea, Kun Hee Lee, Chairman of the Samsung Group, was told of the "Catfish Theory" from his father, Byeong Chul Lee, in the 90's and the story has widely circulated since. Embarking on a new corporate management mission, Kun Hee Lee emphasized that "what the Samsung needs is a change, not maintaining a status quo," and said the following. "Mudfish in the rice paddy co-habiting with shoals of catfish got plumpier and stronger than those without them. The mudfish had to compete and fight against the enemy fish through strengthening themselves with more feed and exercises."

It was the herring to which the Cold War Western Europe was alluded, then that became mudfish in Korea, and finally Norwegian sardine in China. But the paradox that natural enemy catfish plays a role of strengthening the vitality is still widely cited. That's because the argument that competition maximizes the efficiency is certainly persuasive. However, contrary to the argument is formidable too. For example, introducing the research findings published in the <Science> journal in 2012, the Korean media quoted that the predators introduced into the limited space greatly weakened the immune system due to the stress, thus leading not only to a 4-fold increase in mortality, but also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system. This certainly contradicts the catfish effect.

The paradox that a micro size DNA molecule can determine the fate of a cell assembly, an organism and species, and then the life itself is well known scientifically. Such a paradox, namely paradox intrinsically exists everywhere in the world. As a consequence, the catfish effect has been widely referenced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e. university. Global economic downturns lowered the employment rate to 69%, a high 70% college entrance rate in spite of a declining school age population, lowering of employment due to the mismatch

between the job and the majors subject, an increasing demand for change in the paradigm of university education commensurat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o forth are sufficient causes to make the universities a school of herring.

Such herring-turned universities are absorbed in education actively revolving around communication and building competence to meet the society's demand instead of the university's traditional knowledge-centered higher education system. It's said that half of the world's universities would disappear in the next two decades, and 80~90% of what today's elementary school children learn in their classes are likely to be useless, all this instigating the university's sense of crisis.

Recently, the new term "Doughnut Economics" is getting attention. It refers to an alternative economic model proposed by English Economist Kate Raworth that deviating from the mainstream economics of growth-center intoxication, the economy must change for the globe in which people live all safely and fairly. Raworth represents the social basis for everyone deserving the minimal level wellbeing as a circle. Economic activity curving inward implies the economy at risk due to economic deficiencies. The bigger circle surrounding the first one, namely, the outer circumference indicates the global ecology at its limit that must never be crossed if human beings are to survive.

A desirable economy in the Raworth's "Doughnut Economics" is to fill up the doughnut shaped spa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circles. If you breed up the scale of economic activities, you cross the limit of global ecology eventually for co-destruction. On the other hand, if you try to stay within the limit of the outer circle, the inner circle shrinks causing an economic deficiency. Here, what you'll need now is an exquisite equilibrium. Encouragingly, our growth driven education world seems to be at such an equilibrium, thanks to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and similar funding programs. Now is the time to work for "a university faithful to the basics" and "a university preparing for the future" through taking an initiating role to optimize the "doughnut's" domain, that is what I believe is our responsibility with the Korea NU10.



KOREA NU10 NEWS  
01

#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회의 개최

## The Fourth Meeting of the 2019 CP K-NU10

### 총장 직속 감사실 설치, 원격수업 학점교류 등 논의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5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이상경 회장), 환영사(오덕성 충남대 총장), 안건 협의, 폐회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 안건은 ▲총장 직속 감사실 설치 검토 ▲거점 국립대학교 원격수업 학점교류 추진 보고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차기 회장 선정 ▲2020년 제4차 회의 일정 및 개최교 선정 등 4건이다.

협의회는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책무성·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들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학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대학본부·산학협력단 등에 있는 대학 감사기능을 통합·강화하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총장 직속의 별도 감사실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2항에 감사업무는 사무국장 소관업무로 돼 있어 총장 직속으로 별도 감사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직속의 별도 감사실을 설치하고 감사실장은 개방형 공모직위로 운영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기능도 총장 직속 감사실로 통합하여 연구비 관련 복합 민원 및 감사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거점 국립대학교 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원격수업 학점교류를 추진하고, 그 진행상황을 이날 보고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거점 국립대학교 간(9개교) 원격수업 학점교류 서면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7월에는 거점 국립대학교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의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간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국립대학육성사업비)을 확보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개별 납부한 뒤, Keris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각 대학별 2개 교과목, 전체 18개 교과목을 원격수업 학점교류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Discussion on Building a Presidential Audit Office and Remote Cross-Registration

In the afternoon of August 9th, the 2019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P Korea NU10) held its third meeting at Hotel Tirol in Muju-gun, Jeollabuk-do.

The meeting's agenda included ▲a report on the university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measures to jointly provide programs of the seasonal semesters and English courses of the international summer school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orea NU10) ▲a request of assistance for alternative space while remodeling ▲suggestion on the legal amendment on the tax exempt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Regarding the university ISMS, the CP Korea NU10 recommended that the Science and ICT Ministry's ISMS be replaced with the Education Ministry's "ISMS level diagnosis." Since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been implementing the ISMS level diagnosis, the CP Korea NU10 decided to request that Science and ICT Ministry exclude the Korea NU10s from the list of the organizations subject to its mandatory certification.

As for globalization of Korea NU10s, the council decided to have the coalition of Korea NU10s' international exchange department heads seek methods to implement sharing information and exchanging university instructors who can lecture in foreign languages.

With regards to support for alternative space while remodel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tend to avoid new construction or extension but to prefer remodeling. Thus, newly built alternative space is required for the facilities currently being used by professors, administrators, or both faculty and staff. While remodeling is in progress, Korea NU10s requested that these individuals be able to continue to use such alternative space.

On the issue of the legal amendment on tax exempt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the base legal statute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prescribes general succession of the pre-existing national university status. Nonetheless, the separate tax laws have not been accompanied in practice. The status of the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clearly set forth as that of tax exemption in all related tax laws respectively. CP NU10 proposed that the national universities be able to keep its pre-existing tax status.



총장 직속  
감사실  
설치 검토



거점 국립대학교  
원격수업  
학점교류 추진 보고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차기 회장 선정



2020년  
제4차 회의 일정 및  
개최교 선정





KOREA NU10 NEWS  
02

# 거점 국립대 9곳, 2020년 3월부터 '원격수업' 통합 시범 운영

## K-NU9 Members to Kick Off Pilot Remote Class from March 2020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2020학년도 3월부터 원격수업을 일부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9월부터는 통합 원격강의 시스템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점 국립대 학생들은 다른 거점 국립대 원격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돼 다양한 학습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같은 원격수업 학점교류는 앞으로 거점 국립대를 넘어 39개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1월 1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제4차 협의회를 열어 '거점 국립대학교 원격수업 학점교류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원격수업을 공유하기 위한 통합운영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원격수업 통합서비스는 거점 국립대의 기획처장·기초교육원장 등이 '거점 국립대학교 원격수업 학점교류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지난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각 거점 국립대는 학점교류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국립대학육성사업비)을 확보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개별 납부한 뒤, Keris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각 대학별 2개 교과목, 전체 18개 교과목을 원격수업 학점교류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개 거점 국립대학의 원격수업 학점교류는 각 거점 국립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통합서비스는 우선 새로 개발하는 학사 원격강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강의는 새로 구축될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운영방식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번 학점교류는 각 대학의 원격수업을 공유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추진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학 경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작했다. 민병익 경상대 기획처장은 "지역 인재의 서울 쏠림 현상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과 거점 국립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9개 거점 국립대가 원격수업 통합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이들 국립대들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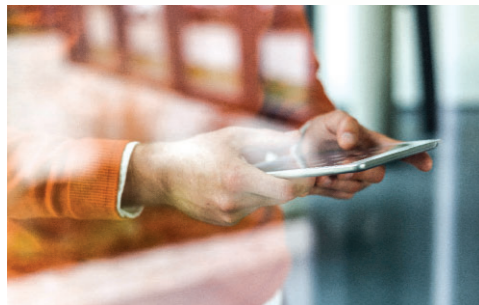
The K-NU9 will start an integrated pilot remote class from March 2020. In addition, they will launch the official remote lecture system from September. Therefore, the students of the K-NU10 will have various opportunities to learn as they can pick any remote lectures provided by other national universities in different cities/provinces. Moreover, this remote cross-registration system will be extended to 39 other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ones.

In November, the CP Korea NU10 held the fourth meeting at Daejeon Convention Center to report the progress on the remote cross-registration of K-NU10. According to the council, the K-NU10 executed policy research to operate the remote cross-registration program amo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integrated remote class service is underway led by the Council of Remote Cross-Registration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hich comprises the planning directors and directors of the basic academy center of the K-NU10.

In July, the council concluded a business agreement with KERIS. As such, each member of the K-NU10 will secure a budget of KRW 50 million (USD 42,745) for the Korean Government's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grams to establish cross-registration systems and pay to the KERIS, the consignment operator. Moreover, the council anticipates that the schools can run the pilot cross-registration system for 18 subjects, 2 for each school, starting from the first semester of 2020 when the system will be fully established.

The new cloud-based system will integrate and provide online lectures offered from each school. These lectures will mostly focus on newly developed contents for remote classes.

We executed the cross-registration program to diversify learning contents and provide as many opportunities as possible to students. It began as part of the solutions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such as the decrease in school-age children and tuition freeze, and maximize administrative efficiency at schools. According to Min Byeongjik, the Planning Director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re's a widening gap between Seoul-based schools and K-NU10 because most of the local talents work in Seoul." He added, "Through this new program, the nine K-NU10 will gain a competitive edge."



통합 온라인 강좌  
클라우드 시스템



콘텐츠 다양화 &  
학습선택권 확대



KOREA NU10 NEWS  
03

## QS-APPLE 2019 콘퍼런스 & 전시회 참가

### QS-APPLE 2019 Conference and Exhibition

9개 거점 국립대는 11월 25~28일 일본 후쿠오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QS-APPLE 2019 콘퍼런스 & 전시회(QS-APPLE 2019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해 공동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거점 국립대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네트워크 형성, 학생 교환·파견 프로그램 등 국내외 대학과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확대했다.

2019 QS-APPLE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회의와 전시를 통해 국제교육자 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혁명 4.0과 고령화사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의 역할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콘퍼런스는 전문가 초청 특강과 주제별 5개 트랙(①학생들의 국제화 ②졸업생들의 글로벌 고용 촉진 ③교수진의 국제화 ④연구의 세계적 영향력 및 평판도 향상 ⑤글로벌 대학 브랜드 구축)의 세미나로 진행됐는데 거점 국립대들은 각각 총장, 국제교류 담당 보직교수, 교직원 등이 참가했다.

The K-NU9 attended the QS APPLE 2019 Conference and Exhibition held in Fukuoka, Japan, from November 25 to 28 and promoted the K-NU10 through the joint booth.

The K-NU10 could expand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universities at home and abroad through networking and student exchange and dispatch programs.

The 2019 QS-APPLE was held under the theme of "Industrial Revolution 4.0 and Ageing Societies: The Changing Roles of Universities in the Asia-Pacific," which aims to strengthen networks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international educators through conferences and exhibitions on higher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tracks for the conference were 1) internationalizing the student body, 2) promoting the global employability of graduates, 3) internationalizing the faculty, 4) enhancing the global impact and reputation of research, and 5) building a global university brand that is attended by presidents, appointed professors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faculty and staff of the K-NU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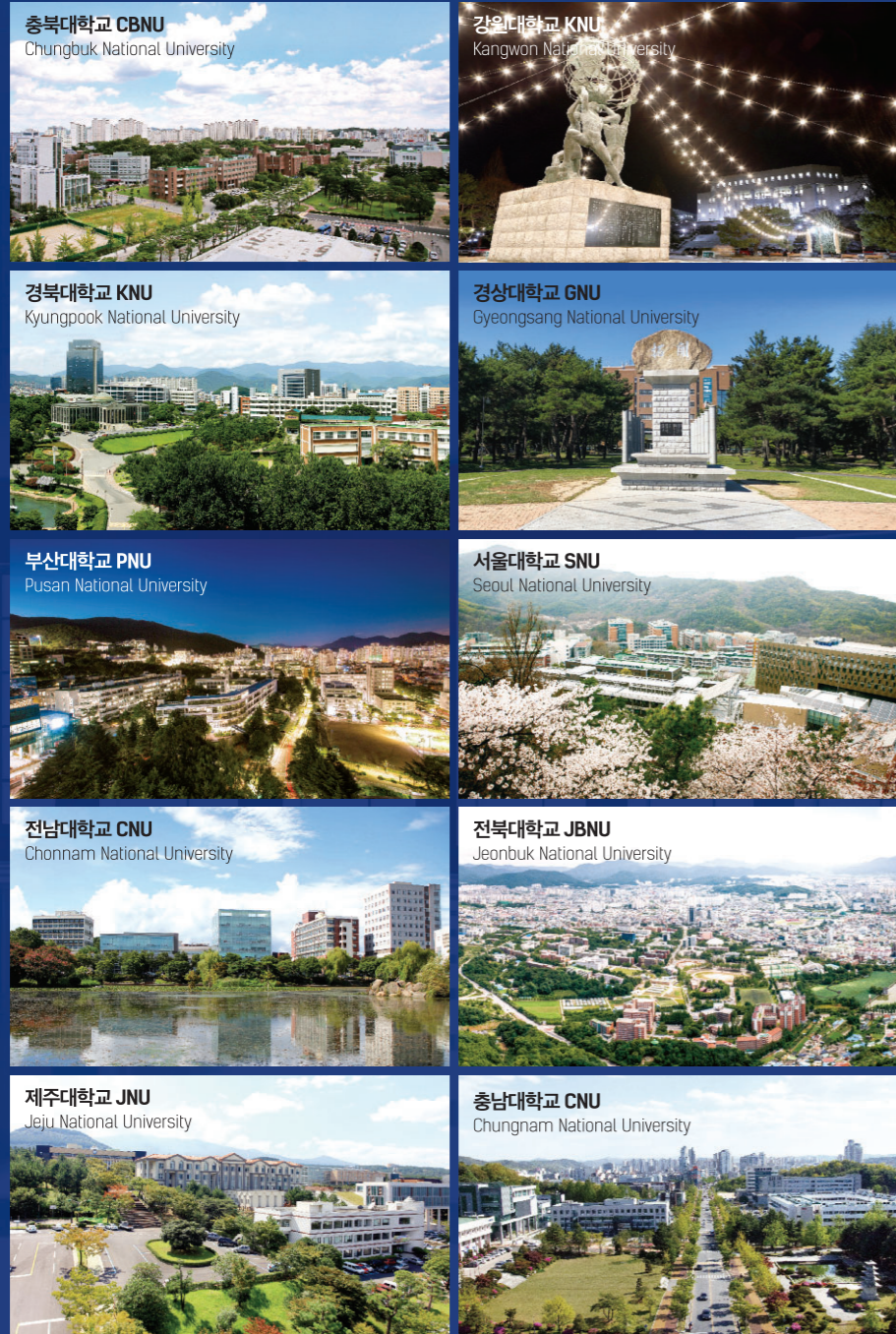
학생, 교수,  
졸업생 국제화



연구 세계화 & 글로벌  
대학 브랜드 구축







# 회원대학 주요 이슈

##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 충북대, 고등교육 발전 및 교육혁신 기여!

제19회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

충북대학교가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제19회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충북대는 조화, 품격, 미래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과 미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그 결과 교육부가 시행한 대학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국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학생 만족도 5년 연속 국립대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총 15개 사업에 1,64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수주했다.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선도,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분야 육성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학습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ww.chungbuk.ac.kr](http://www.chungbuk.ac.kr)  
[www.facebook.com/cbnu1](https://www.facebook.com/cbnu1)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통합형 전인 교육인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류네트워크도 강화했다. 해외의 뛰어난 대학들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등 총 33개교와 신규 학술교류 협정 체결을 통한 교환학생 유치·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의 교류도 돈독히 하는 등 국제교류의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오송역 북카페 운영, 도서관 개방 등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대로 거듭나는 등 교육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김수갑 총장은 "이번 수상은 전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열린 총장, 열린 총장실, 열린 인사, 열린 행정, 열린 학교를 뜻하는 5PEN 정신으로 학교 경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to this aim, CBNU operates RC (Residential College) program. It is an integrated well-rounded education program, so that students can build up knowledge of the humanities and a sense of community and drive changes of society and the world.

To strengthen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exchange, CBNU has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33 excellent universities abroad like Aix-Marseille Université in France. With them, CBNU made an academic exchange agreement and has exchanged students. And recently, CBNU has tried to diversify international exchange into Africa.

CBNU has also expanded its boundaries of education for local people, such as various programs of a lifelong education center, a book cafe at Osong station, university library opening to the local, and etc.

"This achievement came from all the efforts of every CBNU member, I think. As always, I will try to run CBNU with 5PEN, that is open-minded president, open president office, open personnel affairs, open administration, and open university," said Kim, Su-gap, president of CBNU.

### CBNU Contributes to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nd Educational Innovation!

#### Selected as a Best University in Education Competence at the 19th UNN Awards

CBNU got the award as a best university in the section of education competence at the 19th UNN Awards.

On the basi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CBNU has been fostering talented students to deal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strengthen its future educational competence.

CBNU has heavily invested to heighten students' satisfaction. As a result, CBNU was selected as a self-improvement university at a university competence check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best institution for five consecutive years at the evaluation of policy for national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and the best national university for five consecutive years in the section of student satisfaction at NCSI check implemented by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CBNU has acquired considerable working expenses, 164.2 trillion won, for a total of 15 projects from the government. With it, CBNU could lead future car industry, promote 'smart IT parts-system' section, develop many programs for fostering talented students, strengthen teaching and learning, and etc.

In addition, en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BNU has tried to satisfy needs of a region and a society by fostering talented students. For







##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 지역 혁신성장의 심장,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강원대학교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강원대는 10대 1을 상회하는 높은 경쟁률을 거쳐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3개 대학에 포함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거점대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된 강원대는 지역의 혁신과 상생발전을 이끄는 성공적인 산학협력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고, 단지 내에 기업과 연구기관을 입주시켜, 정부의 산학협력사업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강원대는 2020년까지 춘천캠퍼스 6만 6,500㎡ 부지에 476억 원을 투입해 10층 규모의 '플랫폼 혁신센터'를 신축하고, 바이오헬스케어-문화산업분야 첨단기업 입주공간과 회의실-전시관-산학협력교육센터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2026년까지 '사회혁신센터(군 장병 취창업 지원공간)', '문화혁신센터(영화창업공간, 영화제작스튜디오 등)', '생활혁신센터(대학-주민 협력랩, 컨벤션 등)'를 조성한다.

강원대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바이오(BT), 정보통신(IT), 문화콘텐츠(CT) 등 첨단산업 기업과 창업지원기관 총 300여 곳을 유치하고, 2026년까지 1,7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발굴·유치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등 학내 창업지원기구,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입주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아이디어 사업화, R&D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마련, 청년·학생들의 창업문화 확산에 나선다. '창업 후 성장기업(Post BI)'에게는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자금 마련, 판로확보 및 수출시장 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입주기업은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위치해 구인 및 채용이 용이하고, 학생들 역시 기업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창업 프로그램 및 기업 설명회 참여를 비롯해 입주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강원대가 추진하는 '캠퍼스 산학단지'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 대추나무골에 조성되는 '캠퍼스 산학단지' 사업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비롯해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KNU 스타트업 큐브, 산학융합원 등이 위치해 있어 융합형 첨단산업 분야의 창업과 협업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영 총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을 계기로 강원대가 대한민국 중동부권 최대의 첨단산업 혁신단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사회,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KNU to participate in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as the Heart of Regional Innovation Growth

Kangwon National University(KNU) was selected as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to participate in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ved its potential as a hub for youth job cre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as it was included in the three universities selected for this project by beating the odds of 1 in 10. The university that will take part in opening a new era of campus innovation park, plans to create a successful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model which will lead innovation and win-win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Campus Innovation Park Project is aimed to nurture universities as a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growth by designating KNU's idle site as an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ww.kangwon.ac.kr  
www.facebook.com/knu.abs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and focusing on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corporate housing facilities in the complex and promoting government-industry cooperation projects and corporate competency enhancement projects.

For this projec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invest KRW 44.7 billion on the 66,500 m<sup>2</sup> site of its Chuncheon Campus by 2020, constructing a 10-story Platform Innovation Center and occupying spaces for high-tech companies in the biohealth care and cultural industries, conference rooms, exhibition halls, and industry-academia centers. Next, as a two-stage project, the Social Innovation Center (military recruitment support space), the Cultural Innovation Center (film establishment space and movie creation studios, etc.) and the Life Innovation Center (university-resident cooperation lab, conventions, etc.).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ims to attract a total of 300 high-tech industries such as bio (B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and cultural contents (CT),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to create 1,700 new jobs by 2026.

To this end, a dedicated TF team will be established to find and attract companies, and various programs will b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incubators and government support programs such as the LINC+Project, Startup Support Team, and Makerspace Project.

KNU will also provide potential entrepreneur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th a low-cost entry space, establish systematic

incubation programs such as idea commercialization and R&D support, and spread the founding culture of young people and students. Post-Business Growth Firms (POST BI) will also receive a variety of support measure, including promot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raising policy funds, securing sales channels, and developing export markets.

The resident companies are located in the city with excellent accessibility and settlement conditions, so they are easy to hire and recruit people. Students also have more opportunities to get a job at resident companies, including participation in various employment and startup programs and company information sessions.

In particular, the Campus Industry-Academic Complex promoted b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The Campus Industry-Academic Complex project site, Daechnamugol Village of Chuncheon, is located in the campus innovation park and near the sites of new technology startup are, KNW startup cube,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center, etc., which is expected to become a landmark for win-win development.

President of GNU Kim Heonyoung said, "With the selection of the campus innovation park, we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leap into the largest high-tech industrial innovation complex in the middle eastern region of Korea." "We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virtuous industrial ecosystem in which universities, communities, young people and businesses grow together."





##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Creating New Trends and Setting New Standard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ww.knu.ac.kr  
www.facebook.com/knustory



### 경북대, 역사 속의 건물을 재건하다

경북대학교가 역사 속에 사라진 철거 건물의 표지판을 세웠다. 캠퍼스에 설치된 총 9개 철거 건물 표지판은 의견수렴을 통해 'KNU 타임스톤'으로 명명했다. 경북대는 KNU 타임스톤을 곳곳에 세워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교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후세에게 대학 역사를 인식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경북대는 이미 철거된 ▲소강당 ▲과학관 ▲인문관 ▲생물관 ▲농대본관(제2연구동) ▲도서관장서실 ▲교수연구동 ▲제1학생회관 ▲야외공연장 등의 위치에 건물을 표현한 상징물과 간단한 설명을 걸들인 조형물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획과 의견수렴, 디자인 평가 등을 거쳐 원래 건물이 위치한 곳에 설치했다. 타임스톤이 세워진 소강당은 1954년 착공되어 1993년 철거될 당시까지 경북대 최초의 콘크리트 붉은 벽돌 건물로, 졸업식, 총장 취임식, 전체 교수회의, 개교기념식, 학생회 예술제, 국제학술대회, 합동 강의 등을 개최했다. 또, 농대본관은 건평 520평의 콘크리트 2층 건물로, 복도는 철근 콘크리트였으나 2층 각 실의 바닥과 천장은 목조이고, 지붕은 기와로 지었다. 농학과, 원예학과, 농예화학과, 수의학과 등에서 사용하다가 농대호관의 증축으로 예술대학과 사범대학의 임시교사로 잠시 사용되기도 했다. 야외공연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둥근지붕 건물로 무대와 2,00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공연장의 둥근 지붕에는 펜과 횃불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옆에는 비둘기 날개를 상징하는 학교 마크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 구성원들은 타임스톤 설치와 관련 "예전 근무할 당시 있었던 건물인데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질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우리 학교에 야외공연장이 있었다니 새롭다. 지금은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철거되어 무척 아쉽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경북대는 한국 전쟁 피난 시절 종합대학 설립을 위해 건설위원회가 설립되고, 1953년부터 본격적인 목조 및 콘크리트 건물이 경북대 캠퍼스에 신축됐다. 그러나 이후 학생들이 증가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문서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 아쉬움을 남겨왔다. 경북대는 추후에도 철거 건물을 나타내는 타임스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KNU to participate in the 'Campus Innov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builds Buildings in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established markers for demolished buildings that have been lost to history. Signs for these demolished buildings, which total nine on campus, are named the "KNU Timestones," from solicited recommendation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installed KNU Timestones in several places to encourage pride among its members, to foster a sense of love for the school, as well as to recognize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s poster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installed markers that symbolize the demolished buildings with a brief explanation of the buildings in locations where the now removed Small Assembly Hall, Science Hall, Humanities Building, Biology Building, Main building of College of Agriculture(Research Building 2), Library Archives, Faculty Research

Building, Student Union Building 1, and Outdoor Theater were located. This was completed after planning, recommendations, and design evaluation through October last year to August this year. The Small Assembly Hall, where the Timestone is currently setup, was the first concrete red brick building on campus and used for graduation, presidential inaugurations, faculty meetings, university anniversaries, student union art festival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llaborative lectures after it was constructed in 1954 until its demolition in 1993.

In addition, the main building of the College of Agriculture was a 1,719㎡ two-story concrete building. The hallway was reinforced concrete but the floor and ceiling of each room on the second floor were made with wood with a tiled roof. The building was used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Agricultural Chemistry Building and Veterinary School, and later temporarily used by the College of Music and Arts and Teachers' College with the extension of the Agricultural Bldg. 1. The Outdoor Theater was a round-roofed building with one basement floor and one floor above the ground accommodating more than 2,000 people.

On the round roof of the Outdoor Theater was a pen and a torch placed side by side, with a school mark symbolizing pigeon wings.

"It was a building I used to work in,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it," said one university member in regards to Timestone installations. "I'm very happy that the historic buildings have been rebuilt," another noted. And, "It's new to hear that our school had an outdoor theater. It's a shame that there isn't much room for outdoor performances now. But it's good to see it like this," one commente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uthorized a construction committee to establish KNU as a comprehensive university during the Korean War, and full-fledged wooden and concrete buildings started to be built on its campus from 1953. However, as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and the buildings aged, some buildings were eventually demolished and new buildings began to be built, but data related to the demolished buildings remained hard to fi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ll continue to setup Timestones for the torn down buildings that represents the university's long history.







##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Creating New Trends and Setting New Standard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ww.knu.ac.kr  
www.facebook.com/knustory



### 경북대, 역사 속의 건물을 재건하다

경북대학교가 역사 속에 사라진 철거 건물의 표지판을 세웠다. 캠퍼스에 설치된 총 9개 철거 건물 표지판은 의견수렴을 통해 'KNU 타임스톤'으로 명명했다. 경북대는 KNU 타임스톤을 곳곳에 세워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교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후세에게 대학 역사를 인식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경북대는 이미 철거된 ▲소강당 ▲과학관 ▲인문관 ▲생물관 ▲농대본관(제2연구동) ▲도서관장서실 ▲교수연구동 ▲제1학생회관 ▲야외공연장 등의 위치에 건물을 표현한 상징물과 간단한 설명을 걸친 조형물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획과 의견수렴, 디자인 평가 등을 거쳐 원래 건물이 위치한 곳에 설치했다. 타임스톤이 세워진 소강당은 1954년 착공되어 1993년 철거될 당시까지 경북대 최초의 콘크리트 붉은 벽돌 건물로, 졸업식, 총장 취임식, 전체 교수회의, 개교기념식, 학생회 예술제, 국제학술대회, 합동 강의 등을 개최했다. 또, 농대본관은 건평 520평의 콘크리트 2층 건물로, 복도는 철근 콘크리트였으나 2층 각 실의 바닥과 천장은 목조이고, 지붕은 기와로 지었다. 농학과, 원예학과, 농예화학과, 수의학과 등에서 사용하다가 농대호관의 증축으로 예술대학과 사범대학의 임시교사로 잠시 사용되기도 했다. 야외공연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둥근지붕 건물로 무대와 2,00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공연장의 둥근 지붕에는 펜과 횃불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옆에는 비둘기 날개를 상징하는 학교 마크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 구성원들은 타임스톤 설치와 관련 "예전 근무할 당시 있었던 건물인데 까맣게 잊고 있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질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우리 학교에 야외공연장이 있었다니 새롭다. 지금은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철거되어 무척 아쉽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경북대는 한국 전쟁 피난 시절 종합대학 설립을 위해 건설위원회가 설립되고, 1953년부터 본격적인 목조 및 콘크리트 건물이 경북대 캠퍼스에 신축됐다. 그러나 이후 학생들이 증가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는 문서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경북대는 추후에도 철거 건물을 나타내는 타임스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KNU to participate in the 'Campus Innov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builds Buildings in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established markers for demolished buildings that have been lost to history. Signs for these demolished buildings, which total nine on campus, are named the "KNU Timestones," from solicited recommendation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installed KNU Timestones in several places to encourage pride among its members, to foster a sense of love for the school, as well as to recognize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s poster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installed markers that symbolize the demolished buildings with a brief explanation of the buildings in locations where the now removed Small Assembly Hall, Science Hall, Humanities Building, Biology Building, Main building of College of Agriculture(Research Building 2), Library Archives, Faculty Research

Building, Student Union Building 1, and Outdoor Theater were located. This was completed after planning, recommendations, and design evaluation through October last year to August this year. The Small Assembly Hall, where the Timestone is currently setup, was the first concrete red brick building on campus and used for graduation, presidential inaugurations, faculty meetings, university anniversaries, student union art festival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llaborative lectures after it was constructed in 1954 until its demolition in 1993.

In addition, the main building of the College of Agriculture was a 1,719㎡ two-story concrete building. The hallway was reinforced concrete but the floor and ceiling of each room on the second floor were made with wood with a tiled roof. The building was used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Agricultural Chemistry Building and Veterinary School, and later temporarily used by the College of Music and Arts and Teachers' College with the extension of the Agricultural Bldg. 1. The Outdoor Theater was a round-roofed building with one basement floor and one floor above the ground accommodating more than 2,000 people.

On the round roof of the Outdoor Theater was a pen and a torch placed side by side, with a school mark symbolizing pigeon wings.

"It was a building I used to work in, but I completely forgot about it," said one university member in regards to Timestone installations. "I'm very happy that the historic buildings have been rebuilt," another noted. And, "It's new to hear that our school had an outdoor theater. It's a shame that there isn't much room for outdoor performances now. But it's good to see it like this," one commente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uthorized a construction committee to establish KNU as a comprehensive university during the Korean War, and full-fledged wooden and concrete buildings started to be built on its campus from 1953. However, as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and the buildings aged, some buildings were eventually demolished and new buildings began to be built, but data related to the demolished buildings remained hard to fi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ll continue to setup Timestones for the torn down buildings that represents the university's long history.







##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경상대학교

The University with a Promising Future and Full of Happiness! SMAR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ww.gnu.ac.kr  
www.facebook.com/smartGNU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2개 과제 선정

#### 2006년 이후 다섯 번째...지방 거점국립대 중 유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양재경(환경산림과학부, 김현태(애그로 시스템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선정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과기정통부가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경상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5번째이다. 특히 한 번에 하나의 단과대학에서 2명이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방에 위치한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경상대만이 선정됐다.

양재경 교수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훼손지 유형별 식물 생장을 위한 기능성 식생기반재 개발(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기간 2012~2017년)’이라는 과제로 선정됐고, 김현태 교수는 생명·해양 분야에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스마트팜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연구기간 2017~2023년)’라는 과제로 선정됐다.

양재경 교수팀은 산지습지, 도시지역 산지생태계, 터널경구부, 석산개발지 등 다양한 훼손지 복원이 가능한 기능성 식생기반재를 개발했다.

양재경 교수팀은 “훼손된 토양과 산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기술과 이를 위한 적절한 복원 소재 개발이 절실하다.”라고 말하고 “목질 원료는 천연 소재이고 수분 보유력이 높으며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이다. 목질원료에 다양한 전처리, 미생물 첨가 및 화학적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훼손지 복원을 위한 기능성 식생기반재를 개발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태 교수팀은 “농촌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팜이 신성장 동력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제 경쟁에서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량성·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성능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한 스마트팜 확산뿐만 아니라 석·박사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 및 관련 업체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김현태 교수팀은 스마트 축사와 온실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립하고 국산 기자재를 개발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JCR 상위 10% 저널 게재 등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논문 13편, 특허출원 5건을 달성하고 국산 기자재(팜링크) 개발로 14억 9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용창출 12명).

한편 이번에 선정된 성과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추천되고,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 Two Projects Selected for 100 Bes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 Five times since 2006, as the only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a provincial area

Projects by Professor Jae-Kyung Yang (in the Major of Environmental Materials Science,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and Professor Hyeon-Tae Kim (in the Dept. of Bio-systems Eng.)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ave been selected as 100 Bes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chose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Every year, excellent research projects are sele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ince 2006 to inspire and encourage people in relevant fields as well as raise public awar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leading to national development.

This is the fifth time that GNU has been selected as the 100 Bes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However, it is unusual for two people to be chosen from the same college at once. Moreover, GNU is the only school selected among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provincial areas.

The work of Professor Jae-Kyung Yang is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vegetation base materials according to the types of damaged sites” in energy and environment areas, while that of Professor Kim is “the development of the original technology for the new growth engine smart farm of next-generation and localization of the product (research period 2017~2023)” in maritime and bioengineering fields.

The team led by Professor Yang has developed functional vegetation base materials that can restore mountain wetland, urban mountain

ecosystems, pitheads of tunnels, and stony mountain development sites.

“We need a technology that efficiently restores the destroyed soil and forest as well as the proper tools for them,” said Professor Yang. “Wood substances are eco-friendly, natural materials that hold moisture and decompose naturally. As such, we wanted to develop functional materials for restoration by applying the pretreatment, the addition of microorganisms, and the chemical treatment technology to woody materials.”

“At present, the world pays attention to the smart farm based on ICT convergence as a solution to the decreasing agricultural labor force and the declin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said Professor Kim with his team. Furthermore, adding their research background, they stated, “It’s very crucial that we improve the marketability and yield the ability of high value-added equipment of Korea amid global competition, let alone solve labor force supply imbalance by honing professionals with master’s and doctor’s degrees.”

The team led by Professor Kim established the original technology for building a smart-cattle shed and developed domestic equipment. During the research, the team achieved 13 theses with the Science Citation Index (SCI), including the publication for JCR top 10% Journals, 5 cases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approximately KRW 1.4 billion (USD 1.27 million) in sal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quipment, Farm Link (creating 12 new jobs).

Meanwhile, a certificate and a signboard will be granted for the selected works, with additional points in projects and institutional evaluation according to relevant regulations. The selected researchers will be nominated for a Merit Award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 Evaluation and will be prioritized in the selection process of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생육강화형 식생기반재, 미생물강화형 식생기반재, 활착강화형 식생기반재

1 산지습지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2 도시지역 산지개발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3 터널 경구부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4 석산개발 지역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양재경 교수  
Professor Jae-Kyung Yang  
Major of Environmental  
Materials Science

김현태 교수  
Professor Hyeon-Tae Kim  
Dept. of Bio-systems Eng.





##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A University Guided by the Future of Students  
A University Loved by the People  
**Pusan National University**

www.pusan.ac.kr  
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



### 10.16부마민주항쟁 발원지 부산대학교 40주년 및 국가기념일 지정 축하 기념행사 개최

부산대학교는 1979년 10월 16일 교내에서 시작돼 10월 20일까지 부산과 경남 마산 등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10.16부마민주항쟁의 제40주년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부산대 캠퍼스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부산대는 10월 1일부터 16일 기념일 당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대학 자체 40주년 엠블럼을 개발한 것을 비롯, 경남 창원에서 열린 기념식 참가 외에도 각종 전시회와 부산대 증언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KBS기념음악회 등 기념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해 부산대 정문과 운동장(덕낙한터), 상남국제회관 등에서 개최했다.

####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 부마항쟁,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행사 개최

2019년 9월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공식 기념행사로 마련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은 10월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대표, 항쟁 관련자와 가족, 일반시민들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도 전호환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학생과 직원 등 120여 명이 대거 공식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 부산대 교내 표석 제막, 증언집 출판, 음악회 개최 등 기념행사 다채

10월 16일 오후 4시에는 당시 항쟁이 시작된 곳 중 하나인 교내 자연과학관(당시 상학관) 옆 녹지공간에서 올해 40주년을 맞아 (재)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제작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표석' 제막식이 기념재단과 부산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어 오후 5시에는 부산대가 2년에 걸쳐 제작한 '10.16부마민주항쟁 부산대학교 증언집'의 출판기념회가 전호환 총장과 송기인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총학생회장 및 당시 항쟁지역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교내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에서 열렸다.

또 저녁 7시부터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KBS기념음악회 <10월의 바람, 1979>'가 부산대와 KBS, 부산시 공동주최로 교내 덕낙한터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음악회는 부산과 창원(마산) 두 곳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10월 27일 저녁 6시 KBS열린음악회로 전국에 녹화 방송되기도 했다.

#### 40주년 기념 전시회, 엠블럼 개발 등 항쟁 의미 되새겨

한편, 부산대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당시 항쟁 상황과 민주화 활동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10.16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전시회'를 정문에서 개최했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40주년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는 자체 엠블럼을 개발하고, 포스터·현수막·가로등 배너·정문 패널 등 각종 홍보물을 부착해 학내·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밖에도 TV스팟광고 및 신문광고, 홈페이지 홍보와 페이스북 이벤트, 기념영상 제작 등 언론·SNS 홍보도 병행해 10.16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널리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 PNU Held Commemorative Events to Celeb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nd the National Commemorative Day Designation of the Anniversary

Pusan National University commemorate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Busan-Masan (BUMA) Democratic Protests against the dictatorial government. These protests began at the PNU campus on 16 October 1979, spread through Busan and nearby Masan, and continued until 20 October of the year. To honor the anniversary, extensive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to celebrate the designation of a national memorial day around the PNU campus.

PNU marked the period from 1 to 16 October as 'Commemoration Week' to recognize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nd celebrate the creation of a new National holiday. PNU presented emblems of the 40th anniversary. PNU delegation also participated in a memorial ceremony held in Chang-won, Gyeongnam Province. Many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including historical exhibitions, the launch of a book of testimonials, and a KBS memorial music concert. These events were held at the Main Gate and Sangnam International House, etc.

#### One of Four Major Democratic Protests, the BUMA Had the First Official Commemoration Organized by the Government

At a Cabinet meeting in September, 2019, the anniversary of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was designated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The first government-organized ceremony for the anniversary was held on October 16th at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Attendees included

President Moon Jae-in, surviving protesters and their families, about 3,000 students, and members of the public. PNU sent 120 representatives, including the president of PNU, Ho-Hwan Chun, key faculty members, PNU staff members and students to the national ceremony.

#### Various Commemorative Events Held Including the Unveiling of a Stone Marker, a Book Launch for a Collection of Protestor Testimonials and a Music Concert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Foundation and PNU co-hosted a ceremony unveiling a '40th Anniversary of BUMA Democratic Protests Stone Marker.' Created by the foundation, it is located in a green field next to the Natural Science Building (called the Sanghak Building during the time of the protests) at 4pm on 16 October. This site was chosen because some of the first protests took place there.

The book launch for *the October 16th BUMA Democratic Protest Testimonial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at 5pm in the banquet hall on the second floor in Sangnam International House. The president of PNU, Ho-Hwan Chun,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Foundation, Song Ki-in, and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body, and some of the original protesters attended. Research for the book was conducted at PNU over a two-year period prior to publishing.

At 7:00 pm, a KBS 4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concert "Wind of October, 1979" was co-hosted by PNU, KBS Broadcasting, and the city government of Busan at the Liberty Yard in the campus. The concert was filmed live in Busan and Changwon and broadcast nationwide on the program, "KBS Open Concert" at 6pm on October 27th.

#### 40th Anniversary Exhibition and Emblems Reflect the Meaning of the Democratic Uprising

PNU held a "4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16 October BUMA Democratic Protests" at the Main Gate of PNU. This was a historical exhibition materials related to the demonstrations and the democracy movement from October 1-16, 1979. This exhibition spotlighted the historical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se protests.

PNU honored the anniversary of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with an emblem that celebrates the designation of the new national holiday. Furthermore, PNU provided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posters, banners, flag banners, and banner holders at the Main Gate to heighten the atmosphere in and outside of the campus. The historic event was also promoted through major TV and newspaper outlets, on the PNU Web site, and through SNS with a dedicated Facebook page and a short documentary about the anniversary.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16 October BUMA Democratic Protests was properly recognized through these efforts.







##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www.snu.ac.kr  
www.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 고등 교육의 싱크탱크! 대학혁신센터

서울대학교는 자율적으로 내부혁신을 거듭하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며 국립대학교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혁신센터를 설립했다.

#### 대학 혁신 추진 및 고등교육 미래 비전 수립

서울대학교는 고등교육을 선도할 책무가 있기에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 운영과 경영, 행정에 있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과제와 정책을 발굴한다. 이미 운영 중인 정책과 제도는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센터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관련한 정부 시책을 환류하고 개선 방안을 통찰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책 입안을 위한 전략적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고등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박사제도 및 박사 후과정(포닥: post doctor)' 연구를 시작했다. 아울러 센터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한국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일평화연

구원에 의뢰해 통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너지 기반을 강화해 상생 관계를 구축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대학혁신센터는 학내 교육, 연구, 재정, 시설, 인적 자원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센터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대학 운영 현황을 데이터와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혁신과제를 개발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대학 경쟁력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계대학평가 지표 등에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순위 향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역별 성취도를 분석하여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향후의 추진 방향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수면 위의 교육과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끔 대학혁신센터는 수면 아래에서 학교 운영의 선진화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이터의 관제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Think Tank for Higher Education: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SNU has established th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to foster creativity, pave the way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nd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in the country.

#### Promoting innovation at the university and establishing a vision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s the oldest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SNU has the responsibility to lea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in the country. To do so,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on improving operations to manage the school more efficiently as well as monitoring and adjusting curr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school's needs. The new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will play an active role in proposing higher education policies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s creating a basic strategy plan to facilitate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government. The center is currently conducting a study on doctoral and postdoctoral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e center advocat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It has also commissioned the SNU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to take on

unification projects. By helping schools develop a strong relationship based on mutual trust, the center is working to progress their relationship beyond the inter-university level.

#### Data Integration Management and Analysis

Th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will establish a central database for the school's education, research, financ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The center will work with relevant in-school institutions to collect and distribute data. Once this database has been established, university operations will be analyzed based on data indicators along with regular inspections to help the school plan long-term strategies and foster innovation. For example, the database will allow for SNU to gauge its competitiveness based on global evaluation indicators and develop strategies to boost its international ranking. It will also be possibl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ity's education and systematically direct its trajectory. The SNU administration will use th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as a platform for data planning to ensure that the school is doing all it can to grow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대학혁신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 1 대학 혁신 추진 및 고등교육 미래 비전 수립**
- 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
  - 고등교육의 비전 및 발전 방안 연구
  - 국·공립대 협력 과제 개발

- 2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 본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발 기초 자료 제공

서울대의 자율적 내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우수대학으로 도약

대학 주도의 고등교육 비전 제시 및 방향 재정립을 통한 정부 정책 선도

서울대와 국·공립대학 간 협력 기반 내실화

서울대 정책 기획 및 고등교육 정책 개발





## 공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ww.jnu.ac.kr

www.facebook.com/ChonnamUniv



### 전남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산업혁신의 플랫폼

전남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융·복합 교육에 앞장서며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에 AI 집적단지가 조성되면서 우리나라 AI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융합전공을 개설했고, KT 협력 전문가인증 과정인 나노디그리(Nano Degree) 사업을 통해 AI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는 전국에 3개뿐인 융합보안대학원도 유치했다.

전남대는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집대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 시융합대학을 개설했다.

정병석 총장은 “광주에 AI집적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산업 환경과 고급 인재 수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전남대의 시융합대학은 광주전남지역 산업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융합대학 출범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지난 9월 1일 출범한 전남대 ‘시융합대학’에는 로봇, 미래에너지, 빅데이터융용, IoT인공지능 등 4개 융합전공이 들어섰다.

미래자동차, 헬스케어, 문화기술(CT), 영농창업, 도시재생 등 광주 전남의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전공학과를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 여수산학융합캠퍼스 개교

‘전남대 여수산학융합캠퍼스’가 지난 9월 1일 개교했다. 여수산학융합캠퍼스는 석유화학과 플랜트 분야 5개 학과 200여명의 학생이 정규학위과정을 밟으며 현장밀착형 고급기술인재로 양성된다.

또 기업연구관에 입주한 기업연구소들과 애로기술을 공동연구개발하고 근로자들의 선취업·후진학과정을 비롯한 근로자평생학습도 진행된다.

#### 빛그린산학융합캠퍼스 개설

전남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이에따라 오는 2025년까지 399억원을 투입해 광주시 빛그린산단 내에 전남대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설립기로 했다.

전남대는 이곳에 정규학위과정인 ‘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을 신설, 이 전하는 등 고용·생산·교육·연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신개념 산업단지로 만들기로 했다.

또 산학융합 R&D,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계약학과 및 산학캠퍼스 기반 맞춤형 애로기술 지원 등의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산단 내 기업들에 특화된 계약학과 등도 함께 운영한다.

### CNU Provides Innovative Platform for Local Industr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NU has been leading the future-oriented convergence and multidisciplinary education for the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also has been proactively respon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cultivate talents specialized in AI technologies. CNU's efforts are about to bear fruit as an AI integrated complex is going to be established in Gwangju, making city center of the AI research.

Last year, CNU began its first major in the convergence area and is now providing a Nanotechnology Degree Program, a cooperative expert certification course in conjunction with KT, which provides an AI specialized education. This year, CNU was one of the three universities selected in the country to establish a graduate school for convergence security.

Integrating of all its efforts to provide both an education and research basis, CNU also established the College of AI Convergence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ducation alongside research into AI technologies.

President Jeong said, "When the AI integrated complex is established in

Gwangju,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demand for high-quality talent in the region will face a watershed moment. The CNU College of AI Convergence will be a platform for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Gwangju and wider Jeonnam province".

#### Establishment of the CNU College of AI Convergence

CNU founded the College of AI Convergence on September 1 to proactively prepare for the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increasingly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The new college will provide four multi-disciplinary majors in the spheres of robotics, future energy sources, big data-based fina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OT.

CNU will add other multi-disciplinary maj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strategic industries for the future of Gwangju and Jeonnam, such as in the realms of next generation vehicles, health care industries, culture technology (CT), start-up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farming, and urban regeneration.

#### CNU Yeosu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Opens

The CNU Yeosu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opened on September 1. It has been offering regular degree programs and hands-on training for 200 students in five departments in the petrochemical and industrial plant fields.

The Convergence Campus will also provide a 'Worker's Lifelong Learning Program', which includes employment-related programs and re-education in specialized programs as well as tailored education catering to the demands of industries while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mbined with degree programs.

#### CNU will Establish Bitgreen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CNU has been selected for the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omplex Project gover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NU will establish a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and Industrial Research Center in the Bitgreen Industrial Complex, investing 39.9 billion KRW up until 2025.

On the Convergence Campus, CNU will provide new regular degree programs including 'Intelligent Mobility Convergence Engineering' and construct an innovative industrial complex, where employment, production,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e are harmonized.

CNU also plans to provide educational courses and supporting programs such a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ve R&D, a projects lab, R&D internships, and Business labs. Furthermore, it will establish departments designed for early employment contracts with corporations in the complex and offer customized supporting programs for overcoming technological obstacles for the corporations located within the complex.







##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 재학생 대학 만족도 ‘넘버 1’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점수 받아  
HS.AUEA 등 혁신교육 시스템 호응

전북대학교가 ‘재학생 만족도’ 지방 국립대 1위에 올랐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9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다. 전국 종합대학 중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7년에 이어 4번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각 대학별 재학생(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대학 만족도를 조사했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81.5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전북대는 친절성에서 82.9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뢰성 82.7점, 부가서비스 81.6점, 물리적 환경 81.2점, 분원적서비스 81.1점, 적극지원성 80.9점 등으로 세부 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종합대학 1위 대학의 점수인 79.5점보다 높아 전국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대학임을 입증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와 중앙일보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롯데 호텔에서 ‘2019 KS-SQI 인증 수여식’을 갖고, 각 부문 수상 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전북대는 이날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 인증패를 받았다.

전북대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대는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교양교육 내실화와 전공교육에 창의성을 불어넣고 있다. 우수인재 유치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 대학원 교육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의 입학부터 학부와 대학원 진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총괄해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해주는 ‘HS(Honor Stud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잠재력이 큰 동남아 대학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학 교육연합체(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를 구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도 키우고 있다. 향후에는 공동학위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 김형년 병원장 17년째 장학금

총 3억5천만 원 기부 “나눔 손길 이어지길”

기부의 손길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는 계절, 전주시에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면 전북대학교에는 김형년 인천중앙동물약품병원장(전북대 수의학 67학번)이 있다.

김 원장은 모교인 전북대에 200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7년째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도 11월12일 2,000만 원을 냈다. 올해까지 누적된 금액은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12일 기탁식에서 그동안의 나눔 실천과 모교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훗날 또 다른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원장의 바람은 소박했다.

김형년 원장은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뒤 1983년부터 지금까지 36년째 인천 ‘중앙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창 시절 어려웠던 가정형편에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쳤기에 훗날 사회에 나가면 꼭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03년 첫째, 그는 평소 생각에만 그치고 있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2,000만 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보냈다.

당시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학교에 당부했으나 5년째 1억 원이 되던 2007년, 동창회와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그의 ‘잠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전북대는 김 원장의 소중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수의대가 있는 익산 특성화캠퍼스 첨단 강의실을 ‘김형년홀’로 명명해 예우하고 있다.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ww.jbnu.ac.kr  
www.facebook.com/jbnu1947



### No. 1 in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JBNU Ranks Top in KS-SQI Annual Evaluation for Innovative Education Systems such as Honor Students & 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ook the first place in students satisfaction among South Korean universities in the “2019 Service Quality Index Evaluation (KS-SQI)” conducted by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This year it was fourth time JBNU gets the top score in KS-SQI, following 2012, 2015 and 2017. For this evaluation, KSA surveyed 300 students from each university by individual interview.

JBNU scored 81.5 points, which is the average score of each category: hospitality (82.9 pts), reliability (82.7 pts), supplementary benefits (81.6 pts), physical environment (81.2), primary needs fulfillment (81.1 pts), active assistance (80.9 pts) and so on.

The favorable response to the innovative education system to foster talented students led to the JBNU’s high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across the n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strengthening basic education such as writing and developing creativity in major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JBNU is making efforts to attract and educate undergraduate students with talents, and link them to postgraduate programs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BNU has been operating the “Honor Student” system, which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for students from admission to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as well as employment.

In order to foster glocal (global + local) talents, JBNU has also formed an “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 focusing on Southeast Asian universities that have great potential. JBNU is also considering operating a joint degree system with the universities in the future.

### 17 Years of Scholarship Contribution by a Veterinary Alumnus, Dr. Kim Hyung Nyun

A Total Donation of 350 Million Won

’Tis the season of heartwarming stories. If we say that there is an unknown angel, Dr. Kim Hyung Nyun would be one.

Dr. Kim has been contributing development fund to JBNU for 17 years since 2003. He also donated 20 million won on November this year. The total amount of all his donations is 350 million won.

Kim Dong-won, the president of JBNU, delivered a plaque of appreciation to Dr. Kim Hyung Nyun at the ceremony of deposit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expressing his gratitude for the donations and his loving the university.

Dr. Kim used to work in a pharmaceutical company after graduation and opened his own hospital, Incheon Central Zoological Medical Hospital in 1983.

“My family had financial difficulties when I was young, but I could finish my studies thanks to scholarships. So, I thought that I should return the scholarships to younger students in the future,” said Kim Hyung Nyun. “I hope that juniors who receive this scholarship can return them to their juniors in the future.”

In 2003, Dr. Kim decided to start what he had always dreamed about, and sent a 20-million-won scholarship to JBNU. At that time he wanted to keep his donation in secret, but when his donation reached 100 million won after five years th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and local media persuaded him to introduce his story to the world. To commend and commemorate his Kim’s beautiful heart forever, JBNU named one of the classrooms in Veterinary College by “Kim Hyung Nyun Hall”.







##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 내년 9월 첨단과기단지에서 ‘산업단지 캠퍼스’ 개교

#### 산학연계 교육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제주대학교는 내년 9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Jeju Science Park) 산학융합지구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개교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캠퍼스의 명칭은 ‘제주대학교 첨단 캠퍼스’로, 제주 지역전략산업과 밀접한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 공학도가 이전해 3·4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주대는 첨단 캠퍼스에서 지역전략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형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해 전문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위한 특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산업계와의 매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캠퍼스 기업연구관에 입주할 제주산학융합원과 함께 지역미래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매칭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산학협력 성과를 극대화해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교육·연구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캠퍼스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교육부로부터 캠퍼스

설립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내년 3월까지 설립 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대 첨단 캠퍼스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아라동 3005번지 일원에 국비 116억원, 도비 112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되고 있다. 연면적 1만2205㎡에 4,395㎡의 시설이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 산업 외에 산업 기반이 없는 제주 지역에 천혜 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정보 통신 및 생명 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 지원 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산업 단지다.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카카오 등 126개사가 입주해 약 2,23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약 3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도내 3개 고등학교 및 17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학융합지구란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www.jejunu.ac.kr  
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 “Industry Complex Campus” opens at Jeju Science Park next September

#### Specialized Professionals to be Cultivated Through Industrialized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ong Seok-Eon, President) opens the “Industry Complex Campus” within the Jeju Science Park Industry & Academy Fusion Zone located in Ara-Dong, Jeju, next September.

Under the official title “Jeju National University Frontier Campus,” Jeju’s strategic industry-related academic units, the Departments of Chemistry and Cosmetics, Food and Nutrition, and Computer Engineering relocate there to implement the education program for junior and senior classes.

Jeju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operate the Frontier Campus for the industry-dependent fusion education courses to train the industry experts through on-site practical education. In addition, a industrial employee-targeted special program will be provided to consolidate the matching with the regional industrial sector.

There will be a campus industry research hall for the Jeju industry & academy fusion investigators with whom the regional future industry R&D-matching projects will be conducted for maximal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s while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research continue to be supported and strengthened.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undertaken administrative steps and has been granted the permission to establish the campu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JNU Frontier Campus is expected to begin its construction at the

Ara 1-Dong 3005 site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Jeju Industry Academy Fusion Zone with 11.6 billion won governmental grant and 11.2 billion won Jeju autonomous government matching fund. The building with a total area of 10,2205m<sup>2</sup> and a facility area of 4,395m<sup>2</sup> is being readied for construction by December this year.

The Jeju Science Park is a project in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core development grand plan. In addition to the tourism industry, the park hous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grams utilizing the Jeju’s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s, supporting education/research and entrepreneurship for life science and engineering, and all of these activities contributing to the leisure style environ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Currently, the Jeju Science Park accommodates Kakao and 125 other corporations employing about 2,230 workers. The park generated the gross sales of 3 trillion won as of December 2018.

Previously (December 2016), Jeju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the “Jeju Science Park Industry Academy Fusion Development Project”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sortium comprised of Jeju Autonomous Government,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Development Center (JDC), Jeju TechnoPark, Jeju Tourism University, three Jeju provincial high schools and 17 industries.

The Industry Academy Fusion Zone is a project to introduce the industry academy fusion education system through consolidating the on-site practical education and expanding the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s with the university on the shared space.





##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 충남대학교

A Leading University of Korea Leaping on to the World St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ww.cnu.ac.kr](http://www.cnu.ac.kr)  
[www.facebook.com/CNUNOW](https://www.facebook.com/CNUNOW)



### ‘지역사회혁신 교육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충남대학교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충남대는 9월 18일, ‘지역사회혁신 교육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충남대 오덕성 총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정용래 유성구 청장, 강도목 충동창회장과 지역사회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 및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충남대가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한 ‘지역사회혁신 교과목’, ‘지역사회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과 비교과 프로그램인 ‘사회공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발대식에서 참여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과 공헌 활동 적극 참여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감성, 배려,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책임 완수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다짐했다.

2019학년도 2학기에 처음 개설된 ‘지역사회혁신 교과목’은 거점 국립대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e-비즈니스반’, ‘가구설계 및 실습’, ‘통합적 건강교육실무’, ‘건축설계B’,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문화예술 교육개론’, ‘한문문학과 지역문화’, ‘직무분석’, ‘창의공학 설계입문’ 등 총 9개 과목에 151명이 참여한다.

‘지역사회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매학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9개 교과목에 280명이 수강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동아리 활동’은 15개 사회봉사 동아리와 소셜 벤처 동아리 1,400여 명이 참여한다.

다양한 지역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은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남대의 재학생들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대 학생들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혁신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대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혁신플랫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 오덕성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이 지역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발대식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충남대 재학생들이 지역사회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 Opening Ceremony of Education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started active local community innovation with various education programs.

CNU held ‘Opening Ceremony of Education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on September 18, 2019. Professor Deog-Seong OH, CNU President, Mr. Tae-jeong HEO, Mayor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Mr. Yong-rae JEONG, Head of Yuseong District Office, Mr. Do-muk KANG, Chairman of CNU Alumni Association, and other professors and students taking part in this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were attended.

At the ceremony, the students showed their will to universally inform this program and to take active part in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They are participating in ‘Local Community Innovation Courses’ and ‘Capstone Design for Solution to Local Community Problems’ as regular classes, and ‘Club for Social Contribution’ as extracurricular activity.

Also, they resolved to make effor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sustainable local community innovation and contribution activities ▲become talented individual with public concerns and social duties, and capability of emotion, consideration and empathy ▲achiev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as a platform of local community innovation ▲construct open and innovative user-oriented ecology.

In the 2nd semester 2019, the ‘Local Community Innovation Courses’

were opened for a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to create social value and to contribute to local community, which include 9 courses like ‘e-Business’, ‘Designing and Making Furniture’, ‘Comprehensive Health Education Practice’, ‘Architectural Design B’, ‘Media Contents Design’, ‘Introduction to Culture & Art Education’, ‘Chinese Character Literature and Local Literature’, ‘Job Analysis’ and ‘Introduction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 with 151 students.

‘Capstone Design for Solution to Local Society Problems’ course is being participated in by about 200 students every semester and the above-mentioned 9 courses by 280 students in the 2nd semester. 15 community voluntary clubs and 1,400 social venture clubs are taking part in ‘Club for Social Contribution’ as extracurricular activity.

A variety of education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show will of the students in CNU to lead innovation of local community, and to contribute and serve for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program CNU students are expected to cultivate an ability to solve community problems and to step forward to be social innovators for local community.

Accordingly, CNU as the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is expected to perform a role as a hub of innovative platform for local community and to be placed as a main agent of user-oriented open and innovative ecology.

Professor Deog-Seong OH, President of CNU said, “the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should perform the role of local community innovation platform” and “this open ceremony showed the will of CNU students to take active part in local community innovation.”





# Korea NU10 Introduction to Korea NU10

##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독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 (2012, 2015, 2017)

##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독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독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덕성 President Deog-Seong Oh**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병석 President Jeong Byungseo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어젠다 2021 수립, 미래형 창의 융합교육 선도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 제주도 Jeju-do

## 전라남도 Jeollanam-do

## 광주 Gwangju

## 경기도 Gyeonggi-do

## 서울 Seoul

## 강원도 Gangwon-do

## 춘천 Chuncheon

##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청주 Cheongju

## 대전 Daejeon

## 전주 Jeonju

## 전라북도 Jeollabuk-do

## 대구 Daegu

##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 진주 Jinju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6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6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전호환 President Ho-Hwan Chu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상경 President Sang-Gyeong Lee**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독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





##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경상대학교

The University with a Promising Future and Full of Happiness! SMAR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ww.gnu.ac.kr  
www.facebook.com/smartGNU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2개 과제 선정

#### 2006년 이후 다섯 번째...지방 거점국립대 중 유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양재경(환경산림과학부, 김현태(애그로 시스템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선정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과기정통부가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경상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5번째이다. 특히 한 번에 하나의 단과대학에서 2명이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방에 위치한 거점 국립대 중에서는 경상대만이 선정됐다.

양재경 교수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훼손지 유형별 식물 생장을 위한 기능성 식생기반재 개발(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기간 2012~2017년)’이라는 과제로 선정됐고, 김현태 교수는 생명·해양 분야에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스마트팜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연구기간 2017~2023년)’라는 과제로 선정됐다.

양재경 교수팀은 산지습지, 도시지역 산지생태계, 터널경구부, 석산개발지 등 다양한 훼손지 복원이 가능한 기능성 식생기반재를 개발했다.

양재경 교수팀은 “훼손된 토양과 산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기술과 이를 위한 적절한 복원 소재 개발이 절실하다.”라고 말하고 “목질 원료는 천연 소재이고 수분 보유력이 높으며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이다. 목질원료에 다양한 전처리, 미생물 첨가 및 화학적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훼손지 복원을 위한 기능성 식생기반재를 개발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태 교수팀은 “농촌노동력 감소와 농업생산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팜이 신성장 동력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제 경쟁에서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량성·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성능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한 스마트팜 확산뿐만 아니라 석·박사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 및 관련 업체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김현태 교수팀은 스마트 축사와 온실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립하고 국산 기자재를 개발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JCR 상위 10% 저널 게재 등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논문 13편, 특허출원 5건을 달성하고 국산 기자재(팜링크) 개발로 14억 9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용창출 12명).

한편 이번에 선정된 성과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추천되고,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 Two Projects Selected for 100 Bes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 Five times since 2006, as the only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a provincial area

Projects by Professor Jae-Kyung Yang (in the Major of Environmental Materials Science,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and Professor Hyeon-Tae Kim (in the Dept. of Bio-systems Eng.)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ave been selected as 100 Bes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chose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Every year, excellent research projects are sele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ince 2006 to inspire and encourage people in relevant fields as well as raise public awar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leading to national development.

This is the fifth time that GNU has been selected as the 100 Bes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s. However, it is unusual for two people to be chosen from the same college at once. Moreover, GNU is the only school selected among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provincial areas.

The work of Professor Jae-Kyung Yang is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vegetation base materials according to the types of damaged sites” in energy and environment areas, while that of Professor Kim is “the development of the original technology for the new growth engine smart farm of next-generation and localization of the product (research period 2017~2023)” in maritime and bioengineering fields.

The team led by Professor Yang has developed functional vegetation base materials that can restore mountain wetland, urban mountain

ecosystems, pitheads of tunnels, and stony mountain development sites.

“We need a technology that efficiently restores the destroyed soil and forest as well as the proper tools for them,” said Professor Yang. “Wood substances are eco-friendly, natural materials that hold moisture and decompose naturally. As such, we wanted to develop functional materials for restoration by applying the pretreatment, the addition of microorganisms, and the chemical treatment technology to woody materials.”

“At present, the world pays attention to the smart farm based on ICT convergence as a solution to the decreasing agricultural labor force and the declin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said Professor Kim with his team. Furthermore, adding their research background, they stated, “It’s very crucial that we improve the marketability and yield the ability of high value-added equipment of Korea amid global competition, let alone solve labor force supply imbalance by honing professionals with master’s and doctor’s degrees.”

The team led by Professor Kim established the original technology for building a smart-cattle shed and developed domestic equipment. During the research, the team achieved 13 theses with the Science Citation Index (SCI), including the publication for JCR top 10% Journals, 5 cases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approximately KRW 1.4 billion (USD 1.27 million) in sal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quipment, Farm Link (creating 12 new jobs).

Meanwhile, a certificate and a signboard will be granted for the selected works, with additional points in projects and institutional evaluation according to relevant regulations. The selected researchers will be nominated for a Merit Award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hievement Evaluation and will be prioritized in the selection process of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산지습지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1 도시지역 산지개량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2 터널 경구부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3 석산개발 지역 복원용 식생기반재 제조 메뉴얼 4

양재경 교수  
Professor Jae-Kyung Yang  
Major of Environmental  
Materials Science

김현태 교수  
Professor Hyeon-Tae Kim  
Dept. of Bio-systems Eng.





##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A University Guided by the Future of Students  
A University Loved by the People  
**Pusan National University**

www.pusan.ac.kr  
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



### 10.16부마민주항쟁 발원지 부산대학교 40주년 및 국가기념일 지정 축하 기념행사 개최

부산대학교는 1979년 10월 16일 교내에서 시작돼 10월 20일까지 부산과 경남 마산 등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10.16부마민주항쟁의 제40주년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부산대 캠퍼스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부산대는 10월 1일부터 16일 기념일 당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대학 자체 40주년 엠블럼을 개발한 것을 비롯, 경남 창원에서 열린 기념식 참가 외에도 각종 전시회와 부산대 증언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KBS기념음악회 등 기념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해 부산대 정문과 운동장(덕낙한터), 상남국제회관 등에서 개최했다.

####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 부마항쟁,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행사 개최

2019년 9월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공식 기념행사로 마련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은 10월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대표, 항쟁 관련자와 가족, 일반시민들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도 전호환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학생과 직원 등 120여 명이 대거 공식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 부산대 교내 표석 제막, 증언집 출판, 음악회 개최 등 기념행사 다채

10월 16일 오후 4시에는 당시 항쟁이 시작된 곳 중 하나인 교내 자연과학관(당시 상학관) 옆 녹지공간에서 올해 40주년을 맞아 (재)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제작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표석' 제막식이 기념재단과 부산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어 오후 5시에는 부산대가 2년에 걸쳐 제작한 '10.16부마민주항쟁 부산대학교 증언집'의 출판기념회가 전호환 총장과 송기인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총학생회장 및 당시 항쟁지역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교내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에서 열렸다.

또 저녁 7시부터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KBS기념음악회 <10월의 바람, 1979>'가 부산대와 KBS, 부산시 공동주최로 교내 덕낙한터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음악회는 부산과 창원(마산) 두 곳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10월 27일 저녁 6시 KBS열린음악회로 전국에 녹화 방송되기도 했다.

#### 40주년 기념 전시회, 엠블럼 개발 등 항쟁 의미 되새겨

한편, 부산대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당시 항쟁 상황과 민주화 활동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10.16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전시회'를 정문에서 개최했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40주년과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는 자체 엠블럼을 개발하고, 포스터·현수막·가로등 배너·정문 패널 등 각종 홍보물을 부착해 학내·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밖에도 TV스팟광고 및 신문광고, 홈페이지 홍보와 페이스북 이벤트, 기념영상 제작 등 언론·SNS 홍보도 병행해 10.16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널리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 PNU Held Commemorative Events to Celebrat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nd the National Commemorative Day Designation of the Anniversary

Pusan National University commemorated the 40th Anniversary of the Busan-Masan (BUMA) Democratic Protests against the dictatorial government. These protests began at the PNU campus on 16 October 1979, spread through Busan and nearby Masan, and continued until 20 October of the year. To honor the anniversary, extensive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to celebrate the designation of a national memorial day around the PNU campus.

PNU marked the period from 1 to 16 October as 'Commemoration Week' to recognize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and celebrate the creation of a new National holiday. PNU presented emblems of the 40th anniversary. PNU delegation also participated in a memorial ceremony held in Chang-won, Gyeongnam Province. Many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including historical exhibitions, the launch of a book of testimonials, and a KBS memorial music concert. These events were held at the Main Gate and Sangnam International House, etc.

#### One of Four Major Democratic Protests, the BUMA Had the First Official Commemoration Organized by the Government

At a Cabinet meeting in September, 2019, the anniversary of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was designated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The first government-organized ceremony for the anniversary was held on October 16th at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Attendees included

President Moon Jae-in, surviving protesters and their families, about 3,000 students, and members of the public. PNU sent 120 representatives, including the president of PNU, Ho-Hwan Chun, key faculty members, PNU staff members and students to the national ceremony.

#### Various Commemorative Events Held Including the Unveiling of a Stone Marker, a Book Launch for a Collection of Protestor Testimonials and a Music Concert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Foundation and PNU co-hosted a ceremony unveiling a '40th Anniversary of BUMA Democratic Protests Stone Marker.' Created by the foundation, it is located in a green field next to the Natural Science Building (called the Sanghak Building during the time of the protests) at 4pm on 16 October. This site was chosen because some of the first protests took place there.

The book launch for *the October 16th BUMA Democratic Protest Testimonial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at 5pm in the banquet hall on the second floor in Sangnam International House. The president of PNU, Ho-Hwan Chun,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Foundation, Song Ki-in, and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body, and some of the original protesters attended. Research for the book was conducted at PNU over a two-year period prior to publishing.

At 7:00 pm, a KBS 4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concert "Wind of October, 1979" was co-hosted by PNU, KBS Broadcasting, and the city government of Busan at the Liberty Yard in the campus. The concert was filmed live in Busan and Changwon and broadcast nationwide on the program, "KBS Open Concert" at 6pm on October 27th.

#### 40th Anniversary Exhibition and Emblems Reflect the Meaning of the Democratic Uprising

PNU held a "4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16 October BUMA Democratic Protests" at the Main Gate of PNU. This was a historical exhibition materials related to the demonstrations and the democracy movement from October 1-16, 1979. This exhibition spotlighted the historical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se protests.

PNU honored the anniversary of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with an emblem that celebrates the designation of the new national holiday. Furthermore, PNU provided promotional materials such as posters, banners, flag banners, and banner holders at the Main Gate to heighten the atmosphere in and outside of the campus. The historic event was also promoted through major TV and newspaper outlets, on the PNU Web site, and through SNS with a dedicated Facebook page and a short documentary about the anniversary.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the 16 October BUMA Democratic Protests was properly recognized through these efforts.







##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and Creativ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www.snu.ac.kr  
www.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 고등 교육의 싱크탱크! 대학혁신센터

서울대학교는 자율적으로 내부혁신을 거듭하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며 국립대학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혁신센터를 설립했다.

#### 대학 혁신 추진 및 고등교육 미래 비전 수립

서울대학교는 고등교육을 선도할 책무가 있기에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 운영과 경영, 행정에 있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과제와 정책을 발굴한다. 이미 운영 중인 정책과 제도는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센터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관련한 정부 시책을 환류하고 개선 방안을 통찰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정책 입안을 위한 전략적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고등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박사제도 및 박사 후과정(포닥: post doctor)' 연구를 시작했다. 아울러 센터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한국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일평화연

구원에 의뢰해 통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너지 기반을 강화해 상생 관계를 구축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대학혁신센터는 학내 교육, 연구, 재정, 시설, 인적 자원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센터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각의 기관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대학 운영 현황을 데이터와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혁신과제를 개발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대학 경쟁력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계대학평가 지표 등에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순위 향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역별 성취도를 분석하여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향후의 추진 방향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수면 위의 교육과 연구가 질적, 양적으로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끔 대학혁신센터는 수면 아래에서 학교 운영의 선진화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이터의 관제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Think Tank for Higher Education: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SNU has established th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to foster creativity, pave the way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nd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in the country.

#### Promoting innovation at the university and establishing a vision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s the oldest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SNU has the responsibility to lead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in the country. To do so,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on improving operations to manage the school more efficiently as well as monitoring and adjusting curr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school's needs. The new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will play an active role in proposing higher education policies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s creating a basic strategy plan to facilitate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government. The center is currently conducting a study on doctoral and postdoctoral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e center advocat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It has also commissioned the SNU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to take on

unification projects. By helping schools develop a strong relationship based on mutual trust, the center is working to progress their relationship beyond the inter-university level.

#### Data Integration Management and Analysis

Th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will establish a central database for the school's education, research, finance,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The center will work with relevant in-school institutions to collect and distribute data. Once this database has been established, university operations will be analyzed based on data indicators along with regular inspections to help the school plan long-term strategies and foster innovation. For example, the database will allow for SNU to gauge its competitiveness based on global evaluation indicators and develop strategies to boost its international ranking. It will also be possibl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ity's education and systematically direct its trajectory. The SNU administration will use th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as a platform for data planning to ensure that the school is doing all it can to grow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대학혁신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 1 대학 혁신 추진 및 고등교육 미래 비전 수립**
- 본교 혁신 과제 및 정책 개발
  - 고등교육의 비전 및 발전 방안 연구
  - 국·공립대 협력 과제 개발

- 2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 본교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발 기초 자료 제공

서울대의 자율적 내부 혁신을 통한 글로벌 우수대학으로 도약

대학 주도의 고등교육 비전 제시 및 방향 재정립을 통한 정부 정책 선도

서울대와 국·공립대학 간 협력 기반 내실화

서울대 정책 기획 및 고등교육 정책 개발





## 공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ww.jnu.ac.kr  
www.facebook.com/ChonnamUniv



### 전남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산업혁신의 플랫폼

전남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융·복합 교육에 앞장서며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에 AI 집적단지가 조성되면서 우리나라 AI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융합전공을 개설했고, KT 협력 전문기인증 과정인 나노디그리(Nano Degree) 사업을 통해 AI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는 전국에 3개뿐인 융합보안대학원도 유치했다.

전남대는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집대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 시융합대학을 개설했다.

정병석 총장은 “광주에 AI집적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산업 환경과 고급 인재 수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전남대의 시융합대학은 광주전남지역 산업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융합대학 출범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지난 9월 1일 출범한 전남대 ‘시융합대학’에는 로봇, 미래에너지, 빅데이터융용, IoT인공지능 등 4개 융합전공이 들어섰다.

미래자동차, 헬스케어, 문화기술(CT), 영농창업, 도시재생 등 광주 전남의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전공학과를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 여수산학융합캠퍼스 개교

‘전남대 여수산학융합캠퍼스’가 지난 9월 1일 개교했다. 여수산학융합캠퍼스는 석유화학과 플랜트 분야 5개 학과 200여명의 학생이 정규학위과정을 밟으며 현장밀착형 고급기술인재로 양성된다.

또 기업연주관에 입주한 기업연구소들과 애로기술을 공동연구개발하고 근로자들의 선취업·후진학과정을 비롯한 근로자평생학습도 진행된다.

#### 빛그린산학융합캠퍼스 개설

전남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이에따라 오는 2025년까지 399억원을 투입해 광주시 빛그린산단 내에 전남대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설립기로 했다.

전남대는 이곳에 정규학위과정인 ‘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을 신설, 이 전하는 등 고용·생산·교육·연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신개념 산업단지로 만들기로 했다.

또 산학융합 R&D,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비즈니스 Lab, 계약학과 및 산학캠퍼스 기반 맞춤형 애로기술 지원 등의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산단 내 기업들에 특화된 계약학과 등도 함께 운영한다.

### CNU Provides Innovative Platform for Local Industr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NU has been leading the future-oriented convergence and multidisciplinary education for the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also has been proactively respon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cultivate talents specialized in AI technologies. CNU's efforts are about to bear fruit as an AI integrated complex is going to be established in Gwangju, making city center of the AI research.

Last year, CNU began its first major in the convergence area and is now providing a Nanotechnology Degree Program, a cooperative expert certification course in conjunction with KT, which provides an AI specialized education. This year, CNU was one of the three universities selected in the country to establish a graduate school for convergence security.

Integrating of all its efforts to provide both an education and research basis, CNU also established the College of AI Convergence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ducation alongside research into AI technologies.

President Jeong said, "When the AI integrated complex is established in

Gwangju,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demand for high-quality talent in the region will face a watershed moment. The CNU College of AI Convergence will be a platform for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Gwangju and wider Jeonnam province".

#### Establishment of the CNU College of AI Convergence

CNU founded the College of AI Convergence on September 1 to proactively prepare for the new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increasingly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The new college will provide four multi-disciplinary majors in the spheres of robotics, future energy sources, big data-based fina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OT.

CNU will add other multi-disciplinary maj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strategic industries for the future of Gwangju and Jeonnam, such as in the realms of next generation vehicles, health care industries, culture technology (CT), start-up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farming, and urban regeneration.

#### CNU Yeosu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Opens

The CNU Yeosu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opened on September 1. It has been offering regular degree programs and hands-on training for 200 students in five departments in the petrochemical and industrial plant fields.

The Convergence Campus will also provide a 'Worker's Lifelong Learning Program', which includes employment-related programs and re-education in specialized programs as well as tailored education catering to the demands of industries while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mbined with degree programs.

#### CNU will Establish Bitgreen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CNU has been selected for the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omplex Project gover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NU will establish a University-Industry Convergence Campus and Industrial Research Center in the Bitgreen Industrial Complex, investing 39.9 billion KRW up until 2025.

On the Convergence Campus, CNU will provide new regular degree programs including 'Intelligent Mobility Convergence Engineering' and construct an innovative industrial complex, where employment, production,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e are harmonized.

CNU also plans to provide educational courses and supporting programs such a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ve R&D, a projects lab, R&D internships, and Business labs. Furthermore, it will establish departments designed for early employment contracts with corporations in the complex and offer customized supporting programs for overcoming technological obstacles for the corporations located within the complex.







##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 재학생 대학 만족도 ‘넘버 1’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점수 받아  
HS.AUEA 등 혁신교육 시스템 호응

전북대학교가 ‘재학생 만족도’ 지방 국립대 1위에 올랐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9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다. 전국 종합대학 중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7년에 이어 4번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각 대학별 재학생(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대학 만족도를 조사했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81.5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전북대는 친절성에서 82.9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뢰성 82.7점, 부가서비스 81.6점, 물리적 환경 81.2점, 분원적서비스 81.1점, 적극지원성 80.9점 등으로 세부 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종합대학 1위 대학의 점수인 79.5점보다 높아 전국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대학임을 입증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와 중앙일보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롯데 호텔에서 ‘2019 KS-SQI 인증 수여식’을 갖고, 각 부문 수상 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전북대는 이날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 인증패를 받았다.

전북대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대는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교양교육 내실화와 전공교육에 창의성을 불어넣고 있다. 우수인재 유치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 대학원 교육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의 입학부터 학부와 대학원 진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총괄해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해주는 ‘HS(Honor Stud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잠재력이 큰 동남아 대학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학 교육연합체(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를 구성,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도 키우고 있다. 향후에는 공동학위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 김형년 병원장 17년째 장학금

총 3억5천만 원 기부 “나눔 손길 이어지길”

기부의 손길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는 계절, 전주시에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면 전북대학교에는 김형년 인천중앙동물약품병원장(전북대 수의학 67학번)이 있다.

김 원장은 모교인 전북대에 200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7년째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올해도 11월12일 2,000만 원을 냈다. 올해까지 누적된 금액은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12일 기탁식에서 그동안의 나눔 실천과 모교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훗날 또 다른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원장의 바람은 소박했다.

김형년 원장은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뒤 1983년부터 지금까지 36년째 인천 ‘중앙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창 시절 어려웠던 가정형편에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쳤기에 훗날 사회에 나가면 꼭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03년 첫째, 그는 평소 생각에만 그치고 있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2,000만 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보냈다.

당시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학교에 당부했으나 5년째 1억 원이 되던 2007년, 동창회와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그의 ‘잠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전북대는 김 원장의 소중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수의대가 있는 익산 특성화캠퍼스 첨단 강의실을 ‘김형년홀’로 명명해 예우하고 있다.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ww.jbnu.ac.kr  
www.facebook.com/jbnu1947



### No. 1 in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JBNU Ranks Top in KS-SQI Annual Evaluation for Innovative Education Systems such as Honor Students & 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ook the first place in students satisfaction among South Korean universities in the “2019 Service Quality Index Evaluation (KS-SQI)” conducted by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This year it was fourth time JBNU gets the top score in KS-SQI, following 2012, 2015 and 2017. For this evaluation, KSA surveyed 300 students from each university by individual interview.

JBNU scored 81.5 points, which is the average score of each category: hospitality (82.9 pts), reliability (82.7 pts), supplementary benefits (81.6 pts), physical environment (81.2), primary needs fulfillment (81.1 pts), active assistance (80.9 pts) and so on.

The favorable response to the innovative education system to foster talented students led to the JBNU’s high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across the n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strengthening basic education such as writing and developing creativity in major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JBNU is making efforts to attract and educate undergraduate students with talents, and link them to postgraduate programs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BNU has been operating the “Honor Student” system, which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for students from admission to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as well as employment.

In order to foster glocal (global + local) talents, JBNU has also formed an “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 focusing on Southeast Asian universities that have great potential. JBNU is also considering operating a joint degree system with the universities in the future.

### 17 Years of Scholarship Contribution by a Veterinary Alumnus, Dr. Kim Hyung Nyun

A Total Donation of 350 Million Won

’Tis the season of heartwarming stories. If we say that there is an unknown angel, Dr. Kim Hyung Nyun would be one.

Dr. Kim has been contributing development fund to JBNU for 17 years since 2003. He also donated 20 million won on November this year. The total amount of all his donations is 350 million won.

Kim Dong-won, the president of JBNU, delivered a plaque of appreciation to Dr. Kim Hyung Nyun at the ceremony of depositing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expressing his gratitude for the donations and his loving the university.

Dr. Kim used to work in a pharmaceutical company after graduation and opened his own hospital, Incheon Central Zoological Medical Hospital in 1983.

“My family had financial difficulties when I was young, but I could finish my studies thanks to scholarships. So, I thought that I should return the scholarships to younger students in the future,” said Kim Hyung Nyun. “I hope that juniors who receive this scholarship can return them to their juniors in the future.”

In 2003, Dr. Kim decided to start what he had always dreamed about, and sent a 20-million-won scholarship to JBNU. At that time he wanted to keep his donation in secret, but when his donation reached 100 million won after five years th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and local media persuaded him to introduce his story to the world. To commend and commemorate his Kim’s beautiful heart forever, JBNU named one of the classrooms in Veterinary College by “Kim Hyung Nyun Hall”.







##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 내년 9월 첨단과기단지에서 ‘산업단지 캠퍼스’ 개교

#### 산학연계 교육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제주대학교는 내년 9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Jeju Science Park) 산학융합지구에서 ‘산업단지 캠퍼스’를 개교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캠퍼스의 명칭은 ‘제주대학교 첨단 캠퍼스’로, 제주 지역전략산업과 밀접한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 공학도가 이전해 3·4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주대는 첨단 캠퍼스에서 지역전략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형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해 전문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위한 특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산업계와의 매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캠퍼스 기업연구관에 입주할 제주산학융합원과 함께 지역미래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매칭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산학협력 성과를 극대화해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의 교육·연구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캠퍼스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교육부로부터 캠퍼스

설립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내년 3월까지 설립 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대 첨단 캠퍼스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아라동 3005번지 일원에 국비 116억원, 도비 112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되고 있다. 연면적 1만2205㎡에 4,395㎡의 시설이 올해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 산업 외에 산업 기반이 없는 제주 지역에 천혜 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정보 통신 및 생명 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 지원 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산업 단지다.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카카오 등 126개사가 입주해 약 2,23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약 3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대학교, 도내 3개 고등학교 및 17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학융합지구란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www.jejunu.ac.kr  
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 “Industry Complex Campus” opens at Jeju Science Park next September

#### Specialized Professionals to be Cultivated Through Industrialized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ong Seok-Eon, President) opens the “Industry Complex Campus” within the Jeju Science Park Industry & Academy Fusion Zone located in Ara-Dong, Jeju, next September.

Under the official title “Jeju National University Frontier Campus,” Jeju’s strategic industry-related academic units, the Departments of Chemistry and Cosmetics, Food and Nutrition, and Computer Engineering relocate there to implement the education program for junior and senior classes.

Jeju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operate the Frontier Campus for the industry-dependent fusion education courses to train the industry experts through on-site practical education. In addition, a industrial employee-targeted special program will be provided to consolidate the matching with the regional industrial sector.

There will be a campus industry research hall for the Jeju industry & academy fusion investigators with whom the regional future industry R&D-matching projects will be conducted for maximal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s while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research continue to be supported and strengthened.

Jeju National University has undertaken administrative steps and has been granted the permission to establish the campu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JNU Frontier Campus is expected to begin its construction at the

Ara 1-Dong 3005 site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Jeju Industry Academy Fusion Zone with 11.6 billion won governmental grant and 11.2 billion won Jeju autonomous government matching fund. The building with a total area of 10,2205m<sup>2</sup> and a facility area of 4,395m<sup>2</sup> is being readied for construction by December this year.

The Jeju Science Park is a project in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core development grand plan. In addition to the tourism industry, the park hous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grams utilizing the Jeju’s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s, supporting education/research and entrepreneurship for life science and engineering, and all of these activities contributing to the leisure style environ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Currently, the Jeju Science Park accommodates Kakao and 125 other corporations employing about 2,230 workers. The park generated the gross sales of 3 trillion won as of December 2018.

Previously (December 2016), Jeju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the “Jeju Science Park Industry Academy Fusion Development Project”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sortium comprised of Jeju Autonomous Government,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Development Center (JDC), Jeju TechnoPark, Jeju Tourism University, three Jeju provincial high schools and 17 industries.

The Industry Academy Fusion Zone is a project to introduce the industry academy fusion education system through consolidating the on-site practical education and expanding the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s with the university on the shared space.





##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 충남대학교

A Leading University of Korea Leaping on to the World St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ww.cnu.ac.kr](http://www.cnu.ac.kr)  
[www.facebook.com/CNUNOW](https://www.facebook.com/CNUNOW)



### ‘지역사회혁신 교육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충남대학교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충남대는 9월 18일, ‘지역사회혁신 교육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충남대 오덕성 총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강도목 충청창회장과 지역사회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 및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충남대가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한 ‘지역사회혁신 교과목’, ‘지역사회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과 비교과 프로그램인 ‘사회공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발대식에서 참여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과 공헌 활동 적극 참여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감성, 배려, 공감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책임 완수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을 다짐했다.

2019학년도 2학기에 처음 개설된 ‘지역사회혁신 교과목’은 거점 국립대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e-비즈니스반’, ‘가구설계 및 실습’, ‘통합적 건강교육실무’, ‘건축설계B’,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문화예술 교육개론’, ‘한문문학과 지역문화’, ‘직무분석’, ‘창의공학 설계입문’ 등 총 9개 과목에 151명이 참여한다.

‘지역사회문제해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매학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9개 교과목에 280명이 수강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동아리 활동’은 15개 사회봉사 동아리와 소셜 벤처 동아리 1,400여 명이 참여한다.

다양한 지역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은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남대의 재학생들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대 학생들은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혁신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대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혁신플랫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 오덕성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이 지역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발대식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충남대 재학생들이 지역사회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 Opening Ceremony of Education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started active local community innovation with various education programs.

CNU held ‘Opening Ceremony of Education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on September 18, 2019. Professor Deog-Seong OH, CNU President, Mr. Tae-jeong HEO, Mayor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Mr. Yong-rae JEONG, Head of Yuseong District Office, Mr. Do-muk KANG, Chairman of CNU Alumni Association, and other professors and students taking part in this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were attended.

At the ceremony, the students showed their will to universally inform this program and to take active part in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They are participating in ‘Local Community Innovation Courses’ and ‘Capstone Design for Solution to Local Community Problems’ as regular classes, and ‘Club for Social Contribution’ as extracurricular activity.

Also, they resolved to make effor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sustainable local community innovation and contribution activities ▲become talented individual with public concerns and social duties, and capability of emotion, consideration and empathy ▲achiev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as a platform of local community innovation ▲construct open and innovative user-oriented ecology.

In the 2nd semester 2019, the ‘Local Community Innovation Courses’

were opened for a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to create social value and to contribute to local community, which include 9 courses like ‘e-Business’, ‘Designing and Making Furniture’, ‘Comprehensive Health Education Practice’, ‘Architectural Design B’, ‘Media Contents Design’, ‘Introduction to Culture & Art Education’, ‘Chinese Character Literature and Local Literature’, ‘Job Analysis’ and ‘Introduction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 with 151 students.

‘Capstone Design for Solution to Local Society Problems’ course is being participated in by about 200 students every semester and the above-mentioned 9 courses by 280 students in the 2nd semester. 15 community voluntary clubs and 1,400 social venture clubs are taking part in ‘Club for Social Contribution’ as extracurricular activity.

A variety of education program for local community innovation show will of the students in CNU to lead innovation of local community, and to contribute and serve for local community. Through this program CNU students are expected to cultivate an ability to solve community problems and to step forward to be social innovators for local community.

Accordingly, CNU as the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is expected to perform a role as a hub of innovative platform for local community and to be placed as a main agent of user-oriented open and innovative ecology.

Professor Deog-Seong OH, President of CNU said, “the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should perform the role of local community innovation platform” and “this open ceremony showed the will of CNU students to take active part in local community innovation.”





# Korea NU10 Introduction to Korea NU10

##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 (2012, 2015, 2017)

##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인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덕성 President Deog-Seong Oh**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병석 President Jeong Byungseo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어젠다 2021 수립, 미래형 창의 융합교육 선도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 제주도 Jeju-do

## 전라남도 Jeollanam-do

## 광주 Gwangju

## 전라북도 Jeollabuk-do

## 전주 Jeonju

## 대전 Daejeon

## 청주 Cheongju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 경기도 Gyeonggi-do

## 서울 Seoul

## 춘천 Chuncheon

## 강원도 Gangwon-do

##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6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6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전호환 President Ho-Hwan Chu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상경 President Sang-Gyeong Lee**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